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202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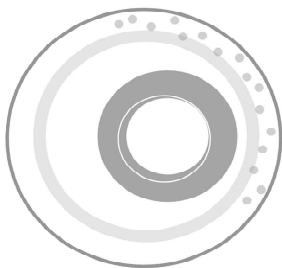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DMISSIONS

목 차

I. 선행 학습영향평가 개요	2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2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3
II. 선행 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7
1. 선행 학습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7
2.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8
3. 대학별고사 및 선행 학습영향평가 일정·절차	8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0
1. 출제 전	10
2. 출제 과정	13
3. 출제 후	13
4. 분항 분석 및 평가	15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36
1. 출제 및 검토 개선	36
2. 출제 후 점검 강화	36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36
V. 부록	38
1. 선행 학습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38
2. 대학별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40



I.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인문계, 약학부	○		○				X
	학생부종합	자연계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X						
	논술	인문계, 자연계	○	○					○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리너십전공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전체	○		○				X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정시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실기/실적	무용과, 회화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작곡과	○			○			X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리너십전공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 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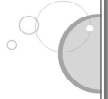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 '입시 도우미' 메뉴 > '통합 공지사항'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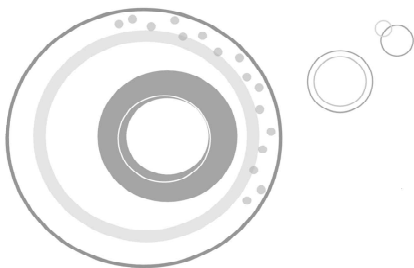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 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 고사	실기 · 실험 고사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인문계, 약학부	○		○				X	준수
	학생부종합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논술	인문계, 자연계	○	○					○	준수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준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전체	○		○				X	준수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준수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준수
정시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준수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준수
	실기/실적	무용과, 회화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작곡과	○			○			X	준수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준수

□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	없음	인문1회차 -1	1-1		○							
					1-2		○							
				인문1회차 -2	2-1	○	○	○						
					2-2	○	○	○						
				인문2회차 -1	1-1	○	○	○						
					1-2	○	○	○						
				인문2회차 -2	2-1	○	○	○						
					2-2	○	○	○						
		자연계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자연1회차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계열	국어	재외국어	1~40	○								
		인문계	영어	재외영어	1~33									○
		자연계	수학	재외수학	1~20				○					
면접 및 구술 고사	학생부종합 (숙명인재 (면접형)전형,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출제 문항 없이 개별 면접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과별 면접 문항 예시를 부록에 수록함.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II.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함.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업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 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 ⑤ (삭제 2020.06.20.)
- ⑥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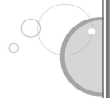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은 논술 출제 경력 위원을 포함한 5인, 외부위원은 현직 교사 4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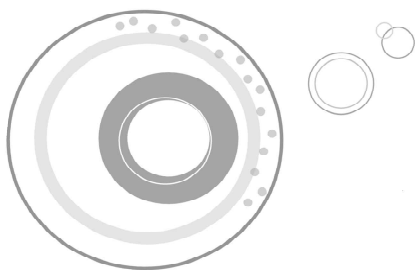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교수	김OO	내부위원 (본교 교수)
위원	입학처	부교수	송OO	
위원	홍보광고학과	교수	문OO	
위원	영어영문학부	부교수	육OO	
위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박OO	
위원	서울고등학교	교사	이OO	외부위원 (현직 교사)
위원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이OO	
위원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한OO	
위원	장충고등학교	교사	정OO	
간사	입학처	직원	우OO	-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일정·절차

절차	일정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23. 4. ~ '24. 1.		입학팀
	재외국민 필답고사	'23. 7. 20.	
	논술고사	'23. 11. 18. ~ '23. 11. 19.	
입학처 자체 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24. 1. ~ '24. 2.		선행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1차 회의	'24. 1. 19. ~ '24. 1. 22.	
	2차 회의	'24. 2. 16. ~ '24. 2. 19.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24. 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출제위원	11명	11명	-
	검토위원	4명	-	4명 (3명)
재외국민특별전형 (전체)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3명	-	3명 (3명)

1. 출제 전

○ 자체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 활용

외부 위원 6인(장학사 1명, 현직 고교 교사 5명)이 참여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음.

위원 성명	위원 소속
손○○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 교사	목동고등학교
조○○ 교사	장충고등학교
이○○ 교사	원목고등학교
김○○ 교사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 교사	서문여자고등학교

○ 고교 교육과정 준수 교육 실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 전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를 위원별로 별도 배부하여 출제 중에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리함.

교육일자	교육명
23.05.26.-23.06.13.	2024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3.06.26.-23.07.18.	2024학년도 재외국민 필답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3.10.10.-23.11.12.	2024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 교육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이해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성취기준 안내
- 문항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안내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위배사례 안내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이해(사학)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 안내: 일반 선택 과목			
한국 지리	영역	특수 영역	이과 선택
	국문 교과	-영국과 영국문화, 영국, 프랑스 -독일 언어와 지역 정보 조사	-미국과 미국의 다양한 모습, 백악관과 대통령 -미국사회의 다양한 문화 모습 소개하기
	지형·공간 이해	-영국에서 세계가 달라진 이야기 -산, 강, 바다의 역할	-영국에서 변화하는 지형 모습 소개하기 -산, 강, 바다로 만든 아름다운 자연 모습 소개하기
	지속 가능한 발전	-유네스코의 7개 기준 이해하기 -지역별 환경 문제 조사	-유네스코의 7개 기준 이해하기 -지역별 환경 문제 조사하기
	지구 공간적 변화와 지역 개발	-유네스코 도시, 도시화, 도시 구조 -도시 개발을 이해하기	-유네스코 도시 이해하기 -도시 공간구조와 지역 개발
관련 학과	생물과 소생물 과학	-인간과 동물, 유전자와 생물 집단 -유전자와 생물 집단	-인간과 동물, 유전자와 생물 집단 -유전자와 생물 집단
	지구과학	-지구 환경과 기후, 지구 환경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지구 환경과 기후, 지구 환경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지구과학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교과 이수 위치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지리학과, 기상학과, 지리교육과, 관광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학과 등을 업			

○ 모의논술 시행

- 수시전형 전 모의논술 운영 후 결과를 논술고사에 반영
- 논술우수자전형 대비 수험생에게 논술 출제방향 안내 및 답안 채점, 우수답안 제공을 통한 논술 준비 지원
- 논술고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입시부담 경감, 사교육 유발 억제
-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통한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도 측정

구분	온라인 모의논술								
일시 및 장소	온라인 모의논술 : 2023.07.05.(수)~2023.07.10.(월), 입학처 홈페이지								
대상자	2024학년도 우리 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								
신청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 및 응시 온라인 : 2023.07.05.(수) 10:00~2023.07.10.(월) 17: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1,200명								
세부 프로그램	온라인 모의논술 2023.07.05.(수) 10:00~2023.07.10.(월) 17:00 : 참가 신청 후 응시 2023.07.31.(월) 17:00 : 응시결과 조회, 모의논술 우수답안 및 채점 결과 총평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모의논술 특강 : 2023.07.31.(월) 17:00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table><tr><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tr><td rowspan="2">인문계열문항</td><td>이○○ 교수</td></tr><tr><td>박○○ 교수</td></tr><tr><td>자연계열문항</td><td>신○○ 교수</td></tr></table>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문항	이○○ 교수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신○○ 교수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문항	이○○ 교수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신○○ 교수								
채점결과 제공	- 개인별 채점 결과 제공 : 문항별 평가 등급 및 응시자 전체 평균 등급 제공, 작성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피드백 제공(「내 답안 다운로드」시 하단에 채점자의 피드백이 있음) - 모범답안 공개 : 채점위원이 전체 응시자 중 각 계열별 모범답안 선정 및 공개 - 총평 공개 : 모의논술 전체 응시자의 채점결과에 대해 출제/채점위원이 인문, 자연계열에 대한 각각의 평을 작성하여 수험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 - 특강(문항해설) 동영상 공개 : 모의논술 특강 영상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함 - 출제 문제 및 해설 공개 : 출제된 문제와 문제 해설을 입학처 홈페이지-기출문제 게시판에 공지하여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년도 대비 개선 및 변경 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전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에게 주지
- 현직 장학사 및 고교 교사가 참여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과정을 통해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함
- 검토위원 중 일반고 교사의 비율을 높임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위원을 통해 사전 검증
-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 교육 이후 출제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검토 실시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이 출제 문항 검토 후 출제위원과 합동회의에서 의견 개진
- 검토위원 대상 검토 보고서 제출 통해 검토 결과 확인
- 온라인 모의논술 시행을 통한 수험생의 논술고사 준비 조력
- 기출문제, 문제해설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문제해설 동영상 공개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출제 및 향후 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확충 유지
- 문항별 검토의견서 분할하여 내용 검토를 구체화 함

2. 출제 과정

- 입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입실 출제 진행(보안요원, 공정위원 포함)
- 해당 고사 종료 시까지 외부와의 접촉 단절
- 논술고사의 경우 모의논술 결과 적극 반영
- 모의논술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출제 방향 및 난도 설정
- 철저한 분석 및 다수/다단계 검증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기출문제 분석, 교과서 분석, 관련 도서 분석 등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 도출
-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에 대한 다수/다단계의 토론 과정을 통해 최적의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검토 및 피드백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주제/제시문/문항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엄수
- 가이드를 준수한 문항카드 작성
- 문항카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채점 기준 등 세부 사항 결정
- 검토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항 출제 완료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문항카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문항카드 최종 확정 및 출제 완료



3. 출제 후

- 출제위원, 검토위원 대상 피드백
- 출제문항, 평가기준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확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함
- 검토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 준수, 출제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나타남

[illegible]

4.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관리 번호 -----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위원별 검토 결과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	2024-1 ----- 인문1회차-1	1-1	• 사회과(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	문항카드①	적합
			2024-2 ----- 인문1회차-2	2-1	• 국어과(문학)	○	문항카드②	적합
			2024-2 ----- 인문1회차-2	2-2	• 사회과(경제)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024-3 ----- 인문2회차-1	1-1	• 국어과(언어와 매체, 국어)	○	문항카드③	적합
			2024-3 ----- 인문2회차-1	1-2	• 사회과(사회·문화)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024-4 ----- 인문2회차-2	2-1	• 국어과(문학, 독서)	○	문항카드④	적합
			2024-4 ----- 인문2회차-2	2-2	• 사회과(통합사회) • 도덕과(생활과 윤리)			
		자연계	2024-5 ----- 자연1회차 -1, 2, 3	1-1	• 수학과(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	문항카드⑤	적합
				1-2				
				2-1				
			2024-5 ----- 자연1회차 -1, 2, 3	2-2				
				3-1				
				3-2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계열	2024-6 ----- 재외국어	1~40	• 국어과(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	문항카드⑥	적합
		인문계	2024-7 ----- 재외영어	1~33	• 영어과(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	문항카드⑦	적합
		자연계	2024-8 ----- 재외수학	1~20	• 수학과(수학, 수학I, 수학II)	○	문항카드⑧	적합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과 부록에 첨부함

2) 전형별 분석 결과

□ 논술고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요약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 : 217명 (인문계 143명, 자연계 74명) ·모집시기 : 수시 ·모집단위 : 인문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테슬(TESL)전공 제외) 및 자연계(약학부 제외) 전 모집단위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시험 90 + 학생부(교과) 10 ·수능최저학력기준 - 인문계열, 통계학과, 인공지능공학부, 의류학과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국어/수학 : 선택과목 미지정, 탐구 : 선택과목 미지정(직탐 제외),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 자연계열(통계학과, 인공지능공학부, 의류학과 제외)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국어 : 선택과목 미지정, 수학 : 선택과목 기하 또는 미적분, 탐구 : 과탐 과목,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전형일정(논술시험일) - 인문계열, 의류학과 : '23.11.18.(토), 19.(일) -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23.11.18.(토)		
차수	시험시간	구분
1회차(11.18.)	10:00~11:40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 기초공학부, 식품영양학과
	14:30~16:10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미디어학부, 의류학과
2회차(11.19.)	10:00~11:40	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교육학부,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유형 : 통합논술형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문항 수 - 인문계, 의류학과 : 인문계열 2문항(세부분항 있음) -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 자연계열 3문항(세부분항 있음) ·시험 시간 : 100분 ·답안 분량 - 인문계열문항 : 전체 답안 분량 1,800자 내외(원고지형식) - 자연계열문항 : 노트형식 ·성적 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등급(최고 900점~최저 675점)으로 평가함		

- 논술고사는 인문·자연 계열별로 운영하며, 인문계열(의류학과 포함)은 2회차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은 1회 진행하였다.
- 논술고사 출제 문항 및 고교 교육과정 분석 내용
- 논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총 40개의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에 기반하여 출제되었고,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0개의 문항은 주어진 60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독서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에 대한 기초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인용한 제시문이나 작품이 평이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합하게 출제되었다.

- 영어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어휘와 다양한 시사 주제를 제시하여 독해 이해 능력을 검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 평가를 위해 언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인공지능, 노령화 사회 등의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분 시간은 수험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수험생의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출제된 문항과 지문 구성,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의 단어의 이해와 다양한 시사적 주제의 영어 지문으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문항의 관련 성취 기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타당도 높은 평가 도구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수학 : 1학년 수학부터 수학I, 수학II까지로 구성되어 교과서 중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고차원적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다. 문항 모두가 교과서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철저히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주어진 시간 내에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되었다.

3) 문항별 분석 결과

☐ 논술 및 재외국민 필답고사 문항 제출 양식 『문항카드(①~⑧)』은 “V. 부록”에 첨부함.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들의 문항별 검토 의견

구분		내용
인문 1회차 -1,2	위원 A	<인문1회차-1> 202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1회차 1-1번, 1-2번 문항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은 두 개의 <표>에 나타난 데이터를 해석하여 플랫폼 노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를 통해 현행법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 이 기준이 종속노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파악한 후, 제시문 <다>를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1)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해당 문항은 표 2개와 제시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들은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서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교과목에서 ‘사회생활과 법’,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등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이라는 우리 사회의 친숙한 소재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이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2)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1회차 문항은 1-1, 1-2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00자 및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3)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1 문항의 경우,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용해서 <가>를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은 <가> 판결문이 <나>를 근거로 해서 배달대행종사자가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음을 해석하게 된다. <나>에서 제시한 핵심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가> 판결문에 적용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답안구성이 300자 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2 문항의 경우, 수험생은 먼저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1>과 <표2>를 분석하게 된다. <표1>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파악한 후,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해석한다. <표2>를 통해서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파악한 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해석한다. 이후 수험생은 현 상황의 문제점의 원인을 <다>에서 제시한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선점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게 된다. 또한 <가>에서 플랫폼 노동자 규정이 협소하게 적용되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에서 제시하는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현 상황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이후 수험생은 결론으로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등과 같은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본 문항의 핵심은 표에서 제시된 수치를 분석하여 핵심문제를 추출해내고, 이 핵심문제를 지문에 적용하는 능력에 있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못하면 표에서 제시한 핵심문제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문항은 수험생의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제시문들은 가독성이 높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필수 개념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 수험생들의 분석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4)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개념을 파악한 후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항은 수험생에게 친숙한 배달 플랫폼의 이면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적 능력의 평가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공개된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시 답안 역시 문항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5) 종합의견: 전체적으로 인문 1회차 1-1, 1-2번 문항은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사회적 현상을 소재로 하여 그 이면의 내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수험생의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문제로 평가한다.

<인문1회차-2>

202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1회차 2-1번, 2-2번 문항은 경제적 유인, 동물 복지론, 동물 권리론 등의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능력, 그리고 이를 소설에 나타난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

었다.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설 속 주인공의 토끼 사육 행위에 대해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과 부정적 경제적 유인 개념을 적용하여 소설 속 주인공이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는 동기를 해석하게 된다. 또한, 제시문 <다>를 통해 공리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동물복지론과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동물권리론의 특징에 근거하여 소설 속 주인공의 토끼사육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1)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해당 문항은 제시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토끼이야기’라는 이태준 작가의 소설이 활용되었고, 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고등학교 경제’ 및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된 후 재구성되었다. 제시문들은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적인 논술 문항의 수준도 고교생 수준에서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인문계열 1회차 문항은 2-1, 2-2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00자 및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3)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1 문항의 경우,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설속 주인공의 토끼사육 결심과 포기를 제시문<나>에서 나타난 경제적 유인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은 <가>에서 주인공이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는 과정을 읽으며, 먹이 문제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의 도살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현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 그 후,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긍정적 경제적 유인과 부정적 경제적 유인의 개념을 적용하여 주인공이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는 동기를 해석하게 된다. <나>에서 제시한 핵심개념을 잘 파악한다면 <가>의 소설속 주인공의 행동에 적용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답안구성이 300자 이므로 장황한 표현을 피하고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2 문항의 경우,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다>를 통해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여 서술하게 된다.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으며,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반면 두 개념의 차이점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에 있는데,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근거를 찾는다. 또한 동물의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의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논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을 밝힌다. 수험생은 이렇게 각 개념을 서술한 후, 각 개념의 시각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게 된다. 먼저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는 ‘현’의 행위가 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먹이를 충분히 공급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사육한 ‘현’의 행위는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본 문항의 핵심은 소설 지문에서 제시된 주인공의 행위를 이론적 개념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능력에 있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논리적 답안 작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며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전체적으로 제시문들은 수험생 눈높이에 잘 맞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필수 개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난이도 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4)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수험생이 경제적 유인, 동물 복지론, 동물 권리론 등의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를 소설에 나타난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하는지 그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함에 있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인물과 상황을 특정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론적 개념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공개된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시 답안 역시 문항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5) 종합의견: 전체적으로 인문 1회차 2-1, 2-2번 문항은 소설에 등장하는 일상 속 현상과 행동을 교과서에 등장하는 학술적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 수험생의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문제로 평가한다.
위원 B	<인문1회차-1>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논술고사의 인문 1회차 1번 문항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시의적절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교과 내용을 활용하여 탐구하도록 논제를 제시한 점도 탁월하였지만 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수준의 법적 사고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한 이해, 기술 변동에 따른 미래 사회 변동에 대한 안목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통합교과적 탐구 의지를 북돋은 점이 현장 교사로서 가장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이 문항의 뼈대를 이루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의도하는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높은 수준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와 법 과목의 성취기준 [12정법05-03]은 노동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사례’에 대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그 근거를 비평하는 과제는 해당 성취기준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문에 충분히 제시하여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함이 없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또한 경제 문제가 사회 제도와 맺는 관계를 논제 속에 다룸으로써 경제 과목의 성취기준 [12경제01-03]과 [12경제01-04]가 의도한 내용을 현실 사례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한 점도 교육과정의 의도를 잘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회 과목의 성취기준 [10통사09-03]이 의도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 중 하나인 정보화 사회로의 변동을 다룸으로써 논술고사가 교실에서 충실히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우수한 평가 도구로서의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은 두 개의 세부 문항으로 나뉘 50분간 총 9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의 분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어진 분량 및 시간은 자료를 숙독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쓴 뒤 간단한 퇴고를 하기에 충분하다. 논제는 <나> 제시문을 기준으로 삼아 <가> 판결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도록 잘 구성되었으며, <표1>, <표2>의 계량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한 해결책을 요구함으로써 교실에서 수행되는 문제 해결 학습의 단계에 문항의 흐름이 대응되도록 출제되었다.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적절히 선정되었다. 출제 의도 및 모범답안은 출제진이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모범답안은 평가기준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숙명여대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본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였을 때,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은 문항의 관련 성취기준의 의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타당도 높은 문항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수학능력을 갖췄는

	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1회차-2> 2024학년도 숙명여대 논술고사 인문 1회차 2번 문항은 문학, 경제, 윤리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아울러 수준 높은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경제와 윤리 분야를 다룬 제시문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교과서 원문을 제구성 함으로써 학생들이 논술고사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고등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다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점이 인상 깊었다. 학생들은 첫 번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 ‘합리적 선택’의 개념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이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학습해온 개념이며 중학교 사회과목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도 폭과 깊이를 달리하여 공부하는 중요개념이다. 비용과 편익을 문학 작품에서 표현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보는 것은 경제 과목 성취기준 [12경제01-02]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 두 번째 문항은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학생들이 익혀야 할 중요 기능인 윤리적 관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덕 윤리 과목 수업에서 익힌 기능을 활용하였다면 ‘동물 권리론’과 ‘동물 복지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윤리 과목의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국어 수업시간에 다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인접 분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성취기준 [12문학02-03] 등)도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은 두 개의 세부 문항으로 나뉘 50분간 총 9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의 분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어진 분량 및 시간은 자료를 숙독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쓴 뒤 간단한 토고를 하기에 충분하다. 논제는 제시문 <나>에 언급된 인간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키는 두 요소인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토끼 사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도록 잘 구성되었으며, <다>의 두 윤리적 관점의 비교를 통해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문학 작품의 상황에 적용하여 학생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적절히 선정되었다. 출제 의도 및 모범답안은 출제진이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모범답안은 평가기준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숙명여대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본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였을 때,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은 문항의 관련 성취기준의 의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타당도 높은 문항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수학능력을 갖췄는 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 2회차 -1,2	<인문2회차-1>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은 ‘슈터 편견’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인지심리학적인 이론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정량적 데이터에 적용해 해석해 볼 것을 요청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데이터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문항은 두 개의 하위 문항, 개념의 이해를 묻는 300자의 문항과 문제가 되는 개념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해 해석하여 서술하는 600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시간은 적정 수준이라 여겨진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300자 내외로 서술하는 1-1번 문항은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물음으로 제시문 <가>에 나온 ‘슈터 편견’이라는 개념을 제시문 <나>의 인지심리학의 ‘이중 처리 이론’이

라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 <가>가 비디오 슈팅 게임을 활용해 사람들의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룬 실험적 사례이고, 제시문 <나>는 인지심리학의 이론적 내용이므로 문항의 요청은 구체적인 현상을 이론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600자 내외로 서술하는 1-2번 문항은 TV 뉴스에 나온 범죄 사건과 인종별 연관성을 다룬 자료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제시문 <가>와 미디어 이론의 내용이 서술된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해석해 보는 것이다. 전체적인 문항의 구성은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문항의 전체 취지는 이론적인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두 하위 문항의 논제와 문제 구성은 논리적 연계성을 가진 적절한 문항이라고 여겨진다.

◆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상황 판단이 달라지는 이른바 ‘슈터 편견’을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실험을 다룬 내용이고, <나>는 인간이 내면화된 기억을 토대로 자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직관적 양식과 규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숙고적 양식을 소개하는 ‘이중 처리 이론’을 다룬 내용이고, <다>는 TV나 소셜 미디어에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제시문들의 내용이나 서술은 고교생의 문해력이라면 독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이다. 그리고 ‘슈터 편견’을 설명하라는 논제를 다루기에 필요한 내용들도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이 제시문을 독해하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험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항에 부속된 범죄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앞선 제시문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적이고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이 문항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문제, 특히 인종에 대한 편견 문제를 TV나 소셜미디어 연관해서 다룸으로써 수험생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을 환기한다. 고교 교육 과정이 다문화 사회의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적이고, 학생들의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 모범 답안의 적절성: 공개된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며 함께 제시된 모범 답안은 문항의 출제 의도와 요구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되어 있다.

◆ 종합의견: 논술우수자 전형은 학생들의 표현력과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번 문항은 난이도 높지 않는 제시문과 제시문의 내용을 수험생 스스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서 시험의 취지에 적합한 우수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험생에게 이 문항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문2회차-2>

2회차 2번 문제는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기술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전 문학 작품들을 통해 첨단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본성적 반응을 다루고 이를 심리학적인 내용과 연결시켜 해석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전체 문제는 <가>와 <나> 두 제시문에 나온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300자 내외로 답하는 문항과 <다> 제시문에 나온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나> 제시문에 나오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600자 내외로 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시문의 내용 또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어서 수험생들이 제한시간 안에 풀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2-1번 문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것으로서, 문학 작품에서 묘사된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기술 분석에 관한 현대적 이론을 비교하여 그 공

	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이고, 2-2번 문항은 널리 알려진 작품인 『프랑켄슈타인』에서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앞선 제시문에 나오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하위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 뒤, 이론적인 개념을 개별 사례에 적용해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 특히 2-1번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이 2-2번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동양의 고전 《열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주나라 목왕이 움직이는 인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묘사한다. <나>는 첨단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다룬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가설을 소개한다.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제시문은 읽기에 어렵지 않다. 다만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문항이 제시하는 문맥에 맞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론적인 개념과 연결시키는 논리적인 독해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 역시 널리 알려진 서양의 소설이므로 수험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요구사항은 프랑켄슈타인의 심리변화를 이론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 제시문의 내용들이 비교적 잘 알려진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이 문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감수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AI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인간 삶의 변화 문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특히 이를 동서양의 고전 문학작품을 매개로 성찰해 보게 함으로써 첨단 기술의 문제를 인간 본성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미래 시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여겨진다. ◆ 모범 답안의 적절성: 공개된 평가 기준은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함께 제시된 모범 답안 역시 문항의 출제 의도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적절한 예시가 되고 있다. ◆ 종합의견: 문학작품의 내용은 다양한 문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론적인 내용을 문학작품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일반화해서 다른 사안에 적용해 보는 문항은 수험생들이 비판적 독해 능력과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첨단 기술 발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미래 시민의 역량으로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비판적 감수성의 문제는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 D	<인문2회차-1>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은 사회적 편견과 인간의 사고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슈터 편견 현상과 이중처리이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고하도록 출제되었다. 슈터 편견 현상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다룬 제시문 (가)를 통해 인종에 따라 사회적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였고, 인간의 사고 특성을 직관적 양식과 숙고적 양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제시문 (나)를 통해 각각의 사고 과정과 특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디어의 정형화와 상대적 비가시성 개념을 설명한 제시문 (다)를 통해 미디어와 사회적 편견 사이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재진술하도록 구성하여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제시문 <나>에 설명된 인간의 사고 특성을 활용해 제시문 <가>에 나타난 편견과 인간의 사고 과정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구성되었다. 또한 제시문 <다>의 도표 자료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적 편견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탐구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의 소재와 개념은 교육부 고시(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과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양상과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1-1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3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제시문의 핵심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표현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1-2 문항은 제시문 <다>에 제시된 도표 자료의 이해 능력과 앞서 제시된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과 연결지어 설명하도록 구성되었으며, 6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여 주어진 50분 정도의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 논제 및 제시문, 문항의 적절성

사회적 편견은 사회과 교과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등을 비롯해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슈터 편견’이나 ‘직관적 양식’, ‘숙고적 양식’ 등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은 주어진 제시문 내에서 정의와 예시 등을 활용해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제시문 <다>의 도표 또한 간결하게 구성되어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1-1문항은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중 ‘직관적 양식’과 슈터 편견의 활성화 과정을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00자의 간략한 서술이기 때문에 두 개념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고, 관련성을 밝힌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2 문항은 제시문 <다>의 표<1>과 표<2>의 내용을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 현상과 제시문 <다>의 정량과 개념, 상대적 비가시성의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표에 제시된 백인, 흑인, 라틴계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사고, 표현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출제 의도와 모범 답안의 적절성

1-1과 1-2 두 문항 모두 논제에 제시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표에 제시된 자료에 응용, 해석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 도표 해석 과제를 제시해 분석적 사고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토대로 변별하도록 출제되었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주제로 한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에게는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외의 요소로 인해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제시문에 사용된 어휘의 수준도 적절하고 문장의 구조도 간결해 출제 의도와 평가 사이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범 답안의 경우에도 문항별 해당 답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개념과 핵심어를 제시하여 채점 기준을 구분하였고, 통계 자료의 항목 구분과 각각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출제 의도와 모범 답안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종합 의견

인문 2회차 1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다룸으로써 수험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학업 충실도를 변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논술 문항에서 친숙한 소재를 접하기 때문에 ‘내용과 소재’로 인한 난이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평가받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매체와 미디어에 나타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항이다.

<인문2회차-2>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한 동서양의 문학 작품과 현대 연구 이론을 다룬 제시문을 모아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열자(列子) 중 인간을 본 떠 만든 인형 이야기를 다루었고, 제시문 <나>는 로봇이나 기계 장치가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친화

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일부 발췌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명체가 완성되는 순간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서술하고 있다. 이 문항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공통 주제 안에서 인간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의 원인과 극복 방식, 프랑켄슈타인의 심리적 변화를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통해 설명하도록 출제되었다.

-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이 문항은 제시문들의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요약,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 고시(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과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윤리’의 성취기준([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과 맞닿아 있으며, ‘국어과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학’ 교과와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시문이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휘의 수준이나 제시문의 길이나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평이하고 친숙한 소재로 여겨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2-1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3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여 인형이나 기계 장치에 대해 느낀 불쾌감의 공통점과 극복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불쾌감의 공통점을 각 제시문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각 제시문에서 인형이나 기계 장치에 대한 불쾌감이 해소되는 변별점을 찾도록 문제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2-2 문항은 제시문 <다>의 프랑켄슈타인의 행위와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그 변화를 제시문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문항 역시 수험생이 작성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600자 내외의 서술 분량 또한 적정 수준으로 요구되었다. 제시문의 내용이 평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했기 때문에 총 900자 서술 분량과 50분의 작성 시간은 적정 수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논제 및 제시문, 문항의 적절성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나 사회 문제는 사회 교과나 과학 교과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주제이다. 또한 AI에 기반한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논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열자(列子)』와 『프랑켄슈타인』 등 동·서양의 작품을 인용하고, 로봇 공학자의 이론을 다룬 제시문을 활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 또한 돋보인다. 제시문에 사용된 어휘나 제시문의 길이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두 문항 모두 각 제시문의 내용 요약과 비교,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사고, 표현 능력과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 출제 의도와 모범 답안의 적절성

2-1과 2-2 두 문항 모두 논제에 제시된 ‘인간이 만든 인간을 닮은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느끼게 되는 불쾌감에 대해 서술하고, 인간은 그 불쾌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인간을 닮은 인공물’에 대한 감정이 친밀감에서 불쾌감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를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무조건적인 기술의 발전에 대한 반문을 제시하도록 출제되었다. 두 문항을 종합할 때, AI에 기반한 기술 발전에 대해 동서양의 고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로봇공학자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고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논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반응 자유도를 좁혔고,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또한 각각의 논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항목화하여 핵심 개념과 필수 개념을 밝혀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핵심 개념과 필수 개념은 제시문에 사용된 표현과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교육 과정 외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였고, 제시문에 사용된 어휘나 표현들도 평이해 출제 의도와 평가 사이의 긴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종합 의견 인문 2회차 2번 문항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재를 다뤄 평소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한 관심, 생활과 윤리, 생명 과학 등 교과 영역 내에서의 학습 활동을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제시문의 경우,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했지만 어휘의 수준이나 제시문의 길이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특히 동서양의 고전 작품을 각각 발췌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고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며 사회 현상에 대해 성찰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도록 출제된 점이 인상적이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사고하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사고 능력을 이해, 비교, 평가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항이다.
자연 1회차 -1,2,3	위원 E	<자연1회차-1>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 = 0$, $f(b) = 0$을 만족시킬 때, 열린구간 (a, b)에서 $f''(x) < 0$이면, 닫힌구간 $[a, b]$에서 $f(x) \geq 0$이다. <나>의 명제는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 $f''(x) < 0 \rightarrow f'(x)$는 감소함 $f'(c) = 0$인 c가 하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열린 구간 (a, b)에서 $f'(c) = 0$를 만족시키는 c는 하나이다. 따라서, 열린 구간 (a, c)에서 $f'(x) > 0$이며, 이는 $f(x)$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구간 (c, b)에서 $f'(x) < 0$이며, 이는 $f(x)$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f(a) = f(b) = 0$이므로 $f(x) \geq 0$이다. 위의 문제는 함수의 연속의 뜻과, 미분값의 sign이 함수의 증가/감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판단된다. 제시문 <가>를 이용하면 $f'(x)$는 열린구간 (a, b)에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부등식을 다시 정리하면 $\frac{f(a)+f(b)}{2}(b-a) \leq \int_a^b f(x)dx$를 증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나>에서 주어진 예시를 응용하여 새로운 함수 $F(a) = F(b) = 0$인 함수를 만족시키는 적당한 $h(x)$를 정의할 수 있다. 함수 $f(x)$가 $(a, f(a))$, $(b, f(b))$를 지나기 때문에 일차함수를 새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x) = \frac{f(b)-f(a)}{(b-a)}(x-a) + f(a)$ $F(x) = f(x) - h(x)$ $F(a) = F(b) = 0$ $F''(x) = f''(x) - h''(x) = f''(x) < 0$ $F(x)$가 제시문 <나>의 (1)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F(x) \geq 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nt_a^b F(x)dx = \int_a^b \{f(x) - h(x)\}dx = \int_a^b f(x)dx - \int_a^b h(x)dx \geq 0$

$\rightarrow \int_a^b h(x)dx \leq \int_a^b f(x)dx$ 이 성립한다.

일차방정식 $h(x)$ 의 적분값은 $\int_a^b h(x)dx = \frac{1}{2}(b-a)[(h(a)+h(b)) = \frac{1}{2}(b-a)[f(a)+f(b)]$ 이

다. 따라서, $\frac{f(a)+f(b)}{2}(b-a) \leq \int_a^b f(x)dx$ 가 증명되며,

궁극적으로 $(b-a)\{f(a)+f(b)\} \leq 2 \int_a^b f(x)dx$ 가 증명된다.

위의 문제는 정적분의 개념과 일차함수의 적분을 통해 풀이할 수 있다. 적절한 함수 $h(x)$ 를 도출해 내는 것이 관건인 문제로 제시문 <나>에 주어진 힌트를 잘 캐치한 경우에 이후 풀이는 전반적으로 평이하여, 계산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로 판단된다.

<자연1회차-2>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int_{2n}^{2(n+1)} g(x)h(x)dx$ 의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x-2n = t$ 로 놓으면, $\frac{dx}{dt} = 1$ 이다.

따라서, $\int_{2n}^{2(n+1)} g(x)h(x)dx = \int_0^2 g(t+2n)h(t+2n)dt = \int_0^2 g(t)h(t)dt = a$ 이다

$h(x)$ 을 이용하여 적분 구간을 나누게 되면

$a = \int_0^2 g(x)h(x)dx = \int_0^1 xg(x)dx + \int_1^2 (2-x)g(x)dx$ 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u = x-1$, $\frac{dx}{du} = 1$ 을 이용하면

$\int_1^2 (2-x)g(x)dx = \int_0^1 (1-u)g(u)du = \int_0^1 (1-x)g(x)dx$ 이며,

따라서 $a = \int_0^2 g(x)h(x)dx = \int_0^1 xg(x)dx + \int_0^1 (1-x)g(x)dx = \int_0^1 g(x)dx$ 이다.

위의 문제는 함수의 주기성과 치환적분,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다. 기본적인 치환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여져 수험생들에게 평이한 난이도로 판단된다.

위의 $f(x)f(-x) = 1 \rightarrow f(x) = \frac{1}{f(-x)}$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nt_{-1}^1 \frac{1}{\{f(x)\}^4 + 1} dx = \int_{-1}^1 \frac{1}{\left\{\frac{1}{f(-x)}\right\}^4 + 1} dx = \int_{-1}^1 \frac{\{f(-x)\}^4}{\{f(-x)\}^4 + 1} dx$

치환 적분을 위해 $t = -x$ 로 놓을 시, $dx = -dt$ 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nt_{-1}^1 \frac{\{f(-x)\}^4}{\{f(-x)\}^4 + 1} dx = - \int_1^{-1} \frac{\{f(t)\}^4}{\{f(t)\}^4 + 1} dt = \int_{-1}^1 \frac{\{f(t)\}^4}{\{f(t)\}^4 + 1} dt$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int_{-1}^1 \frac{1}{\{f(x)\}^4 + 1} dx = \int_{-1}^1 \frac{f(t)^4}{f(t)^4 + 1} dx = a$$

$$\int_{-1}^1 \frac{1}{\{f(x)\}^4 + 1} dx + \int_{-1}^1 \frac{f(t)^4}{f(t)^4 + 1} dx = \int_{-1}^1 \frac{1 + f(t)^4}{\{f(x)\}^4 + 1} dx = 2 = 2a$$

따라서 적분값 $a=1$ 이다 ($\int_{-1}^1 \frac{1}{\{f(x)\}^4 + 1} dx = 1$)

위의 문제는 대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전개, 그리고 치환적분을 통해 풀 수 있다. 마지막 스텝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대수 전개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계산과 개념 적용이 핵심이 되는 좋은 문제로 판단된다.

〈자연1회차-3〉

식을 전개하게 되면 $g(x) = x(x-1)(x-b) = x^3 - (b+1)x^2 + bx$ 를 얻을 수 있다.

다항식의 미분을 통해 $g'(x) = 3x^2 - 2(b+1)x + b$ 를 얻을 수 있으며, 제시문 <마>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 두 근인 α, β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lpha + \beta = \frac{2}{3}(b+1), \quad \alpha\beta = \frac{b}{3}$$

두 근인 α, β 를 정수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b+1) = 3(\alpha + \beta), \quad b = 3\alpha\beta$$

$2(b+1) = 3(\alpha + \beta)$ 를 통해 $(b+1)$ 이 3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b = 3\alpha\beta$ 를 통해 b 는 3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 와 $b+1$ 이 둘다 3의 배수가 동시에 될 수 없기에 모순이 발생하며, α, β 가 모두 정수가 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제는 다항식의 미분, 근의 계수간의 관계, 배수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제시문 <바>에 있는 명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이 유리수이면 방정식 $F'(x) = 0$ 의 근은 유리수이다

이차함수의 두 근과 도함수의 근의 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F(x) = a(x-\alpha)(x-\beta) \rightarrow F'(x) = a(2x-\alpha-\beta) \rightarrow x = \frac{(\alpha+\beta)}{2}$$

이차함수의 두 근인 α, β 가 유리수라면 둘의 합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F'(x) = 0$ 유리수이다.

$u = 1$ 이면 식(6)은 $\frac{1 \pm \sqrt{1+3v^2}}{3}$ 이다.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에 대해 각각 근이 유리수인

지를 확인하고 삼차함수를 구할 수 있다.

먼저 $u=1$ 이면 x 의 하나의 근은 유리수이다. 따라서, 식 (6)의 근이 유리수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1) v = 1 \rightarrow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2}{3} \text{ (유리수)}$$

$$f(x) = \left(x^2 + x - \frac{3}{4}\right)\left(x - \frac{1}{2}\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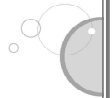
	$2) v = 2 \rightarrow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sqrt{13}}{3} \text{ (무리수)}$ $3) v = 3 \rightarrow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2\sqrt{7}}{3} \text{ (무리수)}$ $4) v = 4 \rightarrow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7}{3} \text{ (유리수)}$ $f(x) = \left(x^2 + x - \frac{63}{4}\right)\left(x - \frac{1}{2}\right)$ 위의 문제는 삼차함수의 근과 식의 관계식, 기본적 대수 연산을 통해 풀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산의 난이도보다는 개념의 적용과 응용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위원 F	<자연1회차-1> 1-1은 물의 정리와 함수의 증가, 감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는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증명 문제를 통해 기본적인 수학적 이해도를 평가하고 문제 풀이 위주가 아닌, 정통적인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 생각한다. <물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함을 보이고 주어진 내용들을 종합하여 원하는 내용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답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직접 증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논술고사의 문제로 적합해 보인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면서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는 문제이며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만들었고 모범답안 또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었다. 1-2는 직관적으로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위로 볼록인 함수를 적분한 넓이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럴 때는 $f(a)$와 $f(b)$의 부호에 따라 설명을 나누어야 한다. 모범답안보다 이렇게 서술한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1-2 문항을 해결할 때 1-1을 참고하면 쉽게 풀린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제시문 <나>의 명제 ①을 이용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함수 $F(x)$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증명 과정이 평균값의 정리의 증명이므로 평균값의 정리 증명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한 학생이라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고 교과서 수준의 증명과정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다. 시간이나 답안의 분량도 적절하였고 증명과정의 논리적 서술과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자연1회차-2> 2-1은 치환적분법을 이용하여 주기함수의 곱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숙대 논술문항만의 특징인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유형으로 다른 대학과 차별화를 두고 숙대 고유의 논술 문항을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제시문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어 제시문을 이해한다면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수학1, 수학2, 미적분의 교과서 지식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어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출제되었고 풀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함수도 쉽게 제시되어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지니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시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논술 문항을 푸는데 제시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출제 의도가 보이는 좋은 문제라 생각된다. 2-2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에서 해결 방법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2-1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문항의 난이도나 문제 풀이 시간, 모범답안의 이해 등 모두 논술고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다.

		<자연1회차-3> 3-1은 귀류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증명을 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이 역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각 대학들의 단골 논술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짧고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 다만 귀류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증명을 다루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헤맬 수 있어 기본기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술문항이라 생각한다. 3-2는 주어진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제공하는 $f'(t)=0$의 두 근을 이용하여 유리수와 무리수를 판별식에서 판단해내고 명제 ②를 통해 $f''(x)=0$의 근을 판단하게 하여 역시 제시문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게 하였다.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모범답안 역시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잘 구성된 문제로 논술 문제로 좋은 문제라 생각한다.
재외 국어 1~40	위원 C	재외국민 필답고사는 해외에서 성장한 수험생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특히 국어 영역은 대학 수업에서 요청되는 수준의 언어 역량을 측정한다. 이러한 한국어 역량은 단순한 읽고 쓰기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필답고사의 문항들 역시 그런 출제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2024학년도 숙명여대 재외필답고사 국어 영역의 문항들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출제되었다.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 총 40개의 문항은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등 고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개발된 문항들이고 문제의 난이도 역시 상례를 벗어나지 않아 고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수험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수험생들은 제한 시간 60분 안에 40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시험은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과 제시문을 독해하고 분석하는 언어 능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문항당 평균 1.5분의 시간이 소요되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답을 할 수 있는 문항들과 제시문 독해에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어 문항의 수와 구성은 제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문항의 적절성: 문항을 살펴보면 1~20번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로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물음들이다. 21~40번 까지의 문항은 제시문을 읽고 글의 구조와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 글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고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문학 작품들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대학의 수학 능력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다양한 영역의 글들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재외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 제시문의 적절성: 문항에 포함된 제시문들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 사회 일상의 단면이 담긴 편의점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과학혁명기 케플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에 이르는 문학작품들을 망라하고 있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양의 수준을 점검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출제된 문항들이 독해력은 물론 분석적 추론 능력 등 다양한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게 출제되었다고 여겨진다. ◆ 출제 의도의 적절성: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시험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출제 문항들은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제시문을 통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세부 지적 역량들을 점검하고, 나아가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 모범 답안의 적절성: 답안의 제시는 적절하였다. ◆ 종합의견: 2024학년도 숙명여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시험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외 거주 수험생의 한국어 기초 지식과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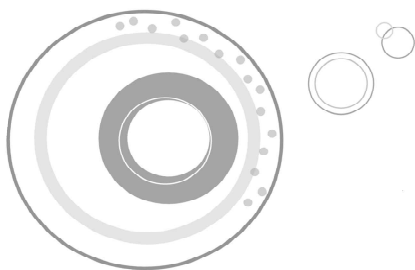
재외 영어 1~33		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험이 목적 중 하나가 능력이 있는 수험생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제시문과 한국의 고전 시가와 현대 소설 등에서 뽑아진 제시문들은 해외에 거주했던 학생들에게 모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문항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위원 D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다형고사 중 국어 문항은 해당 지원자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역량과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총 40개의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에 기반하여 출제되었고,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0개의 문항은 주어진 60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1~20번 문항은 음운 변동과 발음, 한글 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올바른 표현 등의 단원에서 음운 변동과 띄어쓰기와 맞춤법, 높임 표현, 인용 표현은 국어 사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평가하였다. 21~24 문항은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독서의 야경꾼’을 일부 발췌해 구성하였고, 내용 전개 방식과 문단 내용 요약, 글의 내용 확인, 글의 내용 추론 등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25~28 문항은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케플러의 법칙’을 일부 발췌해 구성하였고, 설명문의 특징, 내용 확인, 비슷한 어휘, 빈 칸 어휘 추론 등 과학 관련 설명문의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29~32 문항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백석의 <여승(女僧)>과 김광균의 <외인촌(外人村)>을 제시하였고, 시상전개방식, 시의 표현 방식,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33~36 문항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제시하였고, 소설의 시점,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내용 유추, 내용 확인 등 현대 소설의 감상 이론과 등장 인물의 심리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37~40 문항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월명사의 <제망매가>, <정석가> 중 일부, 박인로의 시조를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였고, 고전 시가의 특징과 비유, 표현법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1~20번)과 독서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21~28번), 현대문학과 고전 문학에 대한 기초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29~40번)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인용한 제시문이나 작품이 평이해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부합하게 출제되었다.
	위원 G	2024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필답고사 영어 시험은 수험자의 영어 단어, 문법, 독해, 번역 등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식 5지선다형의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어 문항은 질문에 설명된 의미의 단어를 선택지에서 고르는 유형과 문장이나 지문을 독해하고 문맥을 추론하여 선택지에서 가장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유형까지 문항의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문법은 단독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독해와 번역 문항은 제시된 독립 지문의 올바른 내용의 이해와 주어진 내용에 기반하여 유추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반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고 시사적인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독해 역량,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출제의 도처럼, ‘역사 연구의 가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독립 지문의 다양한 주제가 수험자의 논리력과 이해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했다고 생각된다. 독립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들이 다소 많아 보이는 하지만, 지문의 분량이 대체적으로 짧고 문항에 사용된 어휘나 문법이 어렵지 않아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라면 60분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항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판단된다.
	위원 H	1)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 재외국민 필답고사 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어휘와 다양한 시사 주제를 제시하여 독해 이해 능력을 검증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 평가를 위해 언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인공지능, 노령화 사회 등의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 영어 I 에 의거하여 성취기준 [12영 I 03-06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와 영어 II 에 의거하여 성취기준 [12영 II 03-04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에 맞춰 출제된 문항을 살펴볼 수 있다.

	2)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분 시간은 수험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3)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재외국민의 언어 구사력 평가를 위해 한국어 번역 문제가 3문항 출제되었으며, 영영 풀이부터 문법, 독해에 이르는 문항 구성이 단계별 문항 풀이에 적절해 보인다. [1-3]은 보기에 나열된 의미를 포함하는 표현을 고르는 문항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영영 풀이의 의미를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어휘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으며 수험생이 어렵지 않게 평가를 시작하기 좋은 문항이라 판단된다. [4-6]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성분을 찾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문항에서 동사, 부사, 분사, 전치사구 등 다양한 요소를 물으며 수험생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한 문법 지식을 문기에 적절하다. [10-11]은 주어진 짧은 한 단락의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는 문항으로 단순히 맥락상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게 아닌 10번은 현재분사형으로, 11번은 과거분사형으로 출제해 분사형의 맥락상 쓰임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12-14]는 과학 지식 자체로서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시문으로, 어휘 표현 고르기, 내용 일치, 한국어 번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지식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식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에게 과학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15]는 역사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는 제시문으로, 한국어 번역, 어휘 표현 고르기, 내용 일치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지문 다음 역사 지문을 배치함으로써 이과 계열과 문과 계열 지식을 두루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19]는 얼굴 표현의 진실성, [20-21]은 지리적 관점에서 섬을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제시문에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한 문항씩 묻고 있으며, 19번 문항은 밑줄 친 부분의 근거 찾기, 21번 문항은 밑줄 친 부분의 예시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의 근거를 찾고 일반적 사실의 구체적 예시를 찾는 문항은 이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기 적합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22-23]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위협을 경고하는 제시문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어휘 문항이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26]은 인구변화를 다룬 제시문으로 어휘 표현을 묻는 문항 2문항과 제목을 찾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을 읽고 핵심어를 찾고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7-29]은 전기차 발달에 따른 전지 재활용 고찰을 다룬 제시문으로 내용 일치 1문항과 대체 어휘 찾기, 빈칸 완성 어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빈칸 완성 문제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여 5가지의 전치사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 어휘의 쓰임을 넘어서 전치사의 쓰임을 물음으로써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전치사의 의미와 성질을 평가할 수 있다. [30-32]은 순환 논증 오류를 설명하는 제시문으로 어휘 표현 2문항과 한국어 번역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번역 문항은 수동태와 병렬구조로 다소 복잡한 형태의 구문을 번역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 될 수 있다. 33번은 맥락에 비추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항이다. 4)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수험생의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제된 문항과 지문 구성,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의 단어의 이해와 다양한 시사적 주제의 영어 지문으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면, 재외필답고사 영어 영역은 문항의 관련 성취기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타당도 높은 평가도구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재외 수학 1~20	위원 E	문항 1: 복소수 연산과 주어진 x에 대해서 $x^2 = -1$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2: 접선과 원의 관계, 혹은 두 방정식의 공통해를 구하는 문제로 고교 과정 내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문항 3: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4: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5: log를 이용한 연산을 통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6: log를 이용하여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혹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풀 수도 있다. 문항 7: $\sin^2\theta + \cos^2\theta = 1$이라는 것과 이차방정식의 계수와 근의 관계를 이용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8: 삼각함수간의 관계식 ($\sin(90 - \theta) = \cos(\theta)$)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문항 9: 사인함수의 최대값과 삼각형의 넓이가 두변의 길이와 그 변들이 이루는 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통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0: 시그마의 기본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1: 기본적인 인수분해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2: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을 통해 풀 수 있다 (분수의 경우 극한의 값이 유한값을 가지기 위해선 분모의 극한값이 0이될 때 분수의 극한값도 0이 된다는 개념) 문항 13: 함수의 연속 조건을 이해하고, 분모의 근이 허수가 되는 조건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다. 문항 14: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 (근의 공식 내의 부등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5: 미분의 기본 개념과 극한의 개념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6: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한 다항식과 다항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7: 주어진 식을 통해 $f(x)$가 2차함수라는 것을 착안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8: 역함수의 성립조건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통해 3차 함수의 미분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9: 다항함수의 부정적분과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20: 이차함수의 정적분을 통해 계수를 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시간과 문제수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기본 개념의 이해를 테스트하려는 출제의도가 느껴지며, 고교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 F	제외필답고사는 1학년 수학부터 수학1, 수학2까지로 구성되어 교과서 중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고차원적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다. 문항해설에도 나와있듯이 1-4번은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5-11번은 수학1 내용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12-20번은 수학2에 나오는 미분, 적분 등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문항 모두가 교과서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철저히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주어진 시간 내에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되었다.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우리 대학은 현행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선행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에 근거하여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1. 출제 및 검토 개선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사전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

-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 대한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실시
-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 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 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2. 출제 후 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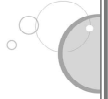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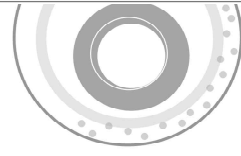
□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

- 출제자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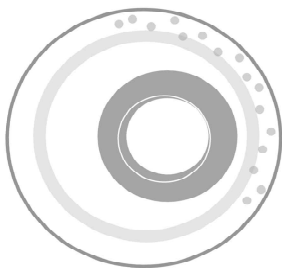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 현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 계열 문항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열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준수함.
- 모의논술 실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추가 평가의견들을 참고하여 문항 구조 및 난이도, 지문 개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고함.



V. 부록



V. 부록

1. 선행학습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사무·관리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2020.06.20.)

-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 ⑤ (삭제 2020.06.20)
- ⑥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 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2. 대학별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노동법, 근로 계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경제 주체의 역할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판결 요약]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배달원(피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함.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결함. 따라서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근거] ① 배달원을 포함한 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② 원고는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③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배달원들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시장 관련법의 근로자 개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판례도 각 법령상의 근로자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

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등이다. 현행 노동법의 규율 대상은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이며, 상위개념인 이 종속노동을 수행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고 본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에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종속노동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인적 종속)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이 부상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오(誤)분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우버 택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최초로 정립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종속노동 개념이 처음 착안되었을 당시의 연원과 그 본래적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속노동 개념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본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대 이행기의 정치적 변화는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로 요약되나, 정치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종속노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노동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 둘째, 종속노동에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종속노동은 인적 종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적 노동법을 정립한 진쯔하이머(Sinzheimer)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처분 하에 종속되어 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종속성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독해다. 진쯔하이머는 실업자처럼 현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노동법이 상정하는 노동자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감독 받지 않으면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가내노동자' 역시 노동자라고 보았다.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 종속성을 종속노동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중심 요소로 보아 협소하게 적용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두 시장을 교차시켜 지식과 정보,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였다. 플랫폼이 일단 성립되고 나면 플랫폼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라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단면시장과 구별된다. 첫째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가치가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네트워크가 커져간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가 커져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지원하면서 성장해 가기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쟁의 본질이 규모의 경제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플랫폼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스프린터처럼 달려야 한

다. 그 결과 플랫폼 경제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승자독식의 원칙이다.

이런 식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애초에 논외였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건당 수수료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즉, 플랫폼 기업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 관계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비껴가며 산업재해 등 위험 비용을 개별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표1>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상위 5개 직종 분포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배달·배송·운송	82.3	68.5	75.9
가사·청소·돌봄	4.6	5.3	-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3.3	14.5	6.2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2.8	5.9	8.5
IT 관련 서비스	2.7	1.2	2.9
미술 등 창작활동	-	-	5.2

<표2>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보험 가입 실태
1) 고용보험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가입	26.9	25.9	46.3
미가입	58.2	48.4	29.1
모름	14.9	25.7	24.6

2) 산재보험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가입	27.7	28.3	43.6
미가입	52.6	43.6	28.1
모름	19.7	28.1	28.4

*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31.2만 명)

* 부업형: 총수입의 25~50% 미만, 주당 10~20시간 미만(26.1만 명)

* 간헐적 참여형: 총수입의 25% 미만, 주당 10시간 미만(8.8만 명)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2021.

1-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

1-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묻고 있다. <가>는 플랫폼 노동의 일종인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현행법상 그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기술하고 있다. <나>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종속노동' 개념임을 설명하고,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성립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개념임을 밝히고, 종속노동을 근로자성 여부에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킨지즘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제반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표>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를 통해 현행법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를 통해 이 기준이 종속노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를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5) 사회생활과 법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 <가>, <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공2018상,988]	대법원		2018.4.26.			○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이다혜	노동법 연구 제49호	2020 상반기	pp.7~14		○
『플랫폼의 생각법 2.0』	이승훈	한스미디어	2020	pp.41-45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배달노동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에 대한 판결사례(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 49372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공2018상,988])

<가>는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이며, 피고는 배달원이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배달원이 대행업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정도, 출퇴근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정도,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의 방식, 근로 계약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나>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 연구, 2020 상반기 제49호, 7~14쪽.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 상의 '근로자' 규정은 핵심적으로 '종속노동'이라는 개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힌다. 즉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모든 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종속노동을 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종속노동을 하며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인적 종속'과 근로자는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경제적 종속'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제시문은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노동자 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종속노동에 출퇴근 장소·시간과 관계되는 인적 종속만이 아니라 생계 유지 여부와 관련된 경제적 종속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자 개념을 인적 종속만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도 같이 살펴 넓게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이승훈 『플랫폼의 생각법 2.0』 한스미디어, 2020, pp.41-45.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동시장과 같이 생산에 관련된 시장과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나뉘어 있던 시장의 구분이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통합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교차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차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간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지문은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논제의 구성

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
(<나>의 핵심 개념)

-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

(<가> 판결의 <관련 근거> 설명)

- 이에 기반하여 <가> 판결문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 ①은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 ②는 출퇴근 시간에 관한 것으로 인적 종속성을,

- ③는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 ④는 근로계약과 임노동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 중 경제적 종속성을 말하고 있다.

- <가> 판결문은 이러한 근거로 배달대행종사자를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

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

- <표1>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문제점)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 또한 <가>는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결 방향)

-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의 핵심 개념을 기술】 ①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 【<가> 판결의 <관련 근거> 설명】 ② 관련근거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③ 관련근거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④ 관련근거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성 여부, ⑤ 관련근거④는 근로계약과 임노동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 중 경제적 종속성 여부에 해당한다. - <가> 판결문은 이러한 근거로 배달대행종사자를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개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세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1>과 <표2>에 대한 설명】 ① <표1>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과의 유추로 배달업 종사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②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상황의 문제점】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④ 또한 <가>는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결방향】 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④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③을 충족하였으나 ②, ④,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네 가지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는 점

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판결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근거 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 여부, ④는 근로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종속 여부에 각각 해당한다.

1-2.

<표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적 유인, 동물복지론, 동물권리론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툰 것 같은, 가슴이 섬뜩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밀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 오십 평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뉘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다. 곧 광주 가네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켄으로 이십 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짚다. 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잎을 뜯어 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맡기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이십 명은 천장을 철사로 얹은 께짝에 담기어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께짝 속이 저희 안도(安堵)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리었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어 끄르며 덤비었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은, 그 귀여운, 그리고 박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오륙 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스무 마리가 아카시아잎이 단풍들 무렵에 사십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오십 마리 치를 늘리려 재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사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 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혈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것째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길이 막히었다. 사십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 더 늘쿠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 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 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뿐이다. (...) 현은 입맛을 짹짹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음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 가지구 미물이

라두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옳우?”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홀몸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 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팻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릿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녀석에게 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메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M 여전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어느 책사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씌어 있기 때문이다. (...)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뻘뻘경거리고, 눈을 툄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 감(感), 박꽃 감은 이젠 아니요, 농기는커녕 웬만침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뻘뻘경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현은 도로 토끼를 갖다 넣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뻘뻘적거리는 것을 이기느라고 같이 힘을 쓰며 뛰어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현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드메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이박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 있는, 마치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 이태준, <토끼 이야기>

<나>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다. 경제적 유인은 해당 경제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유인과 불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유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자에게는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지능이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싱어(Singer)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동물복지론'을 주장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快樂) 감수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얼마만큼 행복이나 고통을 산출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싱어는 어떤 존재가 감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존재가 느끼는 쾌락이건 고통이건 그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누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지를 보고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을 우선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의 주장이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종(種)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처우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양자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동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건(Regan)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동물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권리란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에게 귀속되는 도덕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것이다. 이처럼 내재적 가치가 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레건은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동물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행적인 동물 이용은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가>에 제시된 소설 속 주인공의 토끼 사육 행위에 대해 <나>와 <다>에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해석 및 평가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가>에는 주인공 ‘현’이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특히 먹이 문제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의 ‘도살’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현’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나>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문항은 <나>에 제시된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과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 개념을 적용하여 <가>에서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는 동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취지에서 출제하였다.

<다>는 공리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동물복지론’과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동물권리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항은 <다>의 분석을 통해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 두 이론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 각각의 입장에 근거할 때 <가>에서 서술되고 있는 ‘현’의 토끼 사육 행위에 대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 발문을 구성했다.

요컨대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 ‘동물복지론’, ‘동물권리론’ 등의 추상적인 개념 및 이론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리고 이를 소설에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타당하게 해석 및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제시문 <가>, <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3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제시문 <나>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9	23쪽	제시문<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60-63쪽	제시문<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토끼 이야기>(한국소설문학대계 20)	이태준	동아출판사	1995	199-207	제시문<가>	X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태준, <토끼 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20, 동아출판사, 1995, 199-207쪽

<가>는 주인공 '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토끼 사육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현'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토끼 사육을 시작했지만 토끼의 번식 능력 탓에 개체수가 늘고, 토끼의 먹이로 쓸 비지와 건조 사료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귀해진 상황에서 토끼장도 늘리고 먹이가 될 만한 '토끼밥'을 직접 채취하는 등 자구책을 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이 급여가 한계에 봉착하자 '현'은 토끼 사육을 단념하고 헐값에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토끼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책에 나온 '도살법'에 따라 토끼의 도살을 시도하지만, 그 잔인한 방법에 심리적 갈등을 겪다가 아내의 뱃속의 '태아'를 떠올리면서 토끼 도살을 단념하고 만다.

제시문 <나> : 「경제적 유인과 선택」, 교과서 『경제』, 씨마스, 2019, 23쪽.(내용 재구성)

<나>는 '경제적 유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하는데, 해당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과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요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것이 <나>의 요지이다.

제시문 <다> :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교과서 『생활과 윤리』, 2018, 60-63쪽. (내용 재구성)

<다>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논한 두 개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공리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동물복지론'과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동물권리론'이 그것들이다. <다>에 따르면, '동물 복지론'과 '동물 권리론'은 모두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이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반면, 동물 권리론은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자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논제의 구성

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한 경제적 유인

- ▷ 현은 한정된 퇴직금을 투자할 경우, '사육 비용이 적다'는 조건은 고정된 상황에서 높은 편익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토끼 사육을 결정하였다.
- ▷ 이는 토끼의 시장 가격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끼의 번식력이 좋다는 점, 연 500% 가까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현 아내가 직접 목격한 내용이 뒷받침된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매월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
- ▷ 이에 근거할 때, 토끼 사육은 편익의 증가가 예상될 것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현'이 토끼 사육을 포기한 경제적 유인

- ▷ 먹이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사육 비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 편익, 즉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토끼 사육을 포기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 토끼 개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토끼의 먹이가 되는 비지가 귀해졌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비지는 두부보다 더 귀해진 셈")
- ▷ 이에 근거할 때, 토끼 사육을 지속하는 것은 편익, 투자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것임을 고려하여 토끼 사육 포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

(1)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대비

- ▷ 공통점
 -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
- ▷ 차이점
 - 동물의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를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
 - 동물의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의 측면에서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2)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 평가

- ▷ 평가의 근거가 되는 '현'의 사육 행위들
 - 생계 목적에서 토끼 사육 결정하고 난 직후 평안하게 지낼 안식처(安堵) 제공, 풀과 아카시아잎뿐만 아니라 비지 및 건조 사료 등의 먹이를 충분히 급여해 줌.
 -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자 그에 맞게 토끼장도 확장함. 비지 및 건조 사료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토끼를 굶겨 죽일 수 없어 '토끼밥'이 될 수 있는 풀을 직접 채취하러 나섬.
 - 토끼 먹이 급여가 한계에 봉착하자 토끼를 도살하려 함. 처음과 달리 토끼를 야생의 '짐승'으로 인식함. 아내 뱃속의 '태아'를 떠올리며 토끼 도살을 포기함.

▷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 평가

- 평가의 기준 :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가 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토끼의 번식은 충분한 먹이 급여와 안락한 환경 제공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토끼의 행복을 증대한 것임. 또한 토끼 개체 수 증가 및 먹이 문제가 발생하자 토끼장 확장하고 스스로 먹이가 될 풀을 채취한 행위는 복지의 차원에서 굶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끼의 고통 증가의 초래를 막고자 하는 의미를 가짐.
- 이에 근거할 때, 생계 목적에서 토끼를 이용했지만 '현'의 행위는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토끼 먹이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자 내적 갈등 끝에 토끼 도살을 포기한 행위는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끼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도 가능.

◎ 또한, 가축으로 토끼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토끼가 다 성장했을 경우 토끼의 목숨을 빼앗아 생계를 꾸리기 위한 전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토끼에게 죽음이라는 극단적 고통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 평가

- 평가의 기준 :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토끼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 이에 근거할 때, 아무리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먹이를 충분히 공급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사육한 '현'의 행위는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

◎ 다만, 현의 토끼에 대한 인식이 자연을 개량한 가축에서 자연 상태의 '짐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이 토끼의 도살을 포기가 '태아'에 내재된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해석 여하에 따라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끼 사육 결심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 ①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결심은 퇴직금을 투자할 경우 토끼 번식력이 좋아 연500% 가까운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아내가 전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다. ② 이는 <나>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적다'는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높은 편익이 예상된다	

	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토끼 사육 포기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 ③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포기는 토끼 개체 수의 증가와 토끼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가 귀해졌기 때문이다. ④ 이는 <나>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급등'하자 그로 인해 순편익, 즉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대비】 ① 공통점 : 고통을 느낀다. 인간처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 ② 차이점 : 동물복지론은 꽤고 감수성에서, 동물권리론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근거를 찾는다.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 ③ 평가의 기준이 제시-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④ '현'의 행위 긍정적 평가 : 사육환경, 먹이 공급이 토끼의 행복/고통 초래의 가능성 - 충분한 먹이 급여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이 번식을 가능하게 함(토끼의 행복 증대) - 토끼 개체 수 증가, 먹이 문제가 발생->토끼장 확장, 현이 직접 먹이 채취(굶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토끼의 고통 증가를 방지) - 따라서, 생계 목적에서 토끼를 이용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아래의 부정적 평가도 가능하므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차적임> - 토끼 도살 포기는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해 토끼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 - 생계 목적의 사육 행위 자체가 극단적 고통을 초래할 도살을 전제로 했다는 점.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 ⑤ 평가의 기준 제시 -토끼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님. 따라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토끼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⑥ '현'의 행위 부정적 평가 : 좋은 사육환경과 먹이를 공급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이용한 '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아래의 긍정적 평가의 근거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도 고려해야 함> ◎ 현의 토끼에 대한 인식 변화 : 가축에서 자연 상태의 '짐승'으로 / 현의 도살 포기가 '태아'에 내재된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충족하고, 논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 ⑥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 ⑥이 부족하고 논리성과 정서법이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 ⑥이 불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 ⑥이 불충분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⑥가 부족하면서 논리성 및 정서법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2-1.

<가>에서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한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퇴직금이 작은 한정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토끼 사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토끼의 번식 능력이 연 500%에 가까

운 편익(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아내가 직접 목격한 정보를 근거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이 토끼 사육을 포기한 것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의 작용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끼 사육을 지속할 경우, 토끼 개체 수 증가 및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의 공급 부족, 그로 인한 사육 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2-2.

<다>의 '동물 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전자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데 반해 후자는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는 점,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전자는 인정하지만,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 준다.

<가>는 생계를 위해 토끼 사육을 시작했지만 먹이 문제로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를 도살하고자 하지만 단념하는 '현'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현'의 이런 행동은 동물복지론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끼에게 안락한 환경 및 먹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 개체 수 증가하자 토끼장을 넓히고, 직접 토끼풀을 구하고자 노력한 '현'의 행동은 토끼의 행복을 증가하고 고통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권리론의 입장에서 '현'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의 토끼 사육 행위 자체가 생계 목적을 위해 토끼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토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내 뱃속의 '태아'를 떠올려 토끼 도살을 단념한 것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매체, 편견, 문화 다양성, 인종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코렐(Correll) 등 4명의 연구자는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이용한 세 차례의 실험을 통해 총이나 다른 물건을 들고 있는 흑인이나 백인 표적이 복잡한 배경과 함께 등장할 때, 실험 참가자들이 그 표적에 총을 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표적의 인종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험 의도가 실험 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이 각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민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와 2차 실험에는 백인만이 참여했고 3차 실험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참여했다.

각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게임에 등장하는 표적이 무장하고 있다면 사격하고,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사격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실험 참여에 앞서 흑인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과 문화적 고정관념의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실험에 들어갔다.

1차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무장한 백인 표적보다는 무장한 흑인 표적에 총을 더 빨리 쏘았으며, 비무장 흑인 표적보다는 비무장 백인 표적일 때 총을 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 2차 실험에서는 게임 응답 제한 시간을 0.85초에서 0.63초로 조정해 참가자들이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오류율을 높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무장한 흑인이 표적일 때보다 무장한 백인이 표적일 때 사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비무장 백인 표적보다 비무장 흑인 표적이 등장할 때 실수로 더 자주 총을 쏘았다. 흑인과 백인이 모두 참가한 3차 실험에서도 1차와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세 차례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무장 표적과 비무장 표적을 구별하는 능력은 표적의 인종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백인보다는 흑인 표적에 대해 총을 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흑인 표적에 대해서는 총을 쏘기 전에 그가 실제로 총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덜 필요했다.

이것은 '슈터 편견(shooter bias)'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강하게 믿는 참가자들에게서 이러한 슈터 편견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흑인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과 낮은 참가자들 간에는 슈터 편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직관적 양식(associative mode)과 숙고

적 양식(reflective mode)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두 양식은 서로 다른 기억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직관적 양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면, 숙고적 양식은 규칙을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직관적 양식은 투입되는 정보를 병렬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며,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숙고적 양식은 직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으로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보는 직관적 양식을 통해 처리된다. 숙고적 양식은 직관적 양식에 투입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직관적 양식에 의해 어떤 관련 반응이 생성되지 않으면, 숙고적 양식이 작동해 이후의 판단과 행위를 계산한다. 이때 숙고적 양식은 그 반응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반응으로 조정한다. 어떤 반응이 타당한 추론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러한 반응을 차단하기도 한다. 직관적 양식은 저장된 기억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격 묘사를 보고 특정 직업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한지를 알아내는 기술은 언어와 문화를 광범위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기억에 저장해 두었다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다.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는 대신 편향에 사로잡혀 무엇을 믿거나 확신하는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반해 같은 상황에서 숙고적 양식에 의한 정보처리는 그 정보의 사실이나 타당성을 우선한다. 판단의 오류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

<다>

미디어는 소수인종에 대해 일부 사실이나 이미지 등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거나 아예 존재를 부각하지 않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시청자의 지각, 사고방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소수인종 재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하고 있다.

예컨대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종적으로 코드화된 설명용 쉼표(explanatory comma)를 자주 사용한다. 특정한 표현이 독자들에게 낯설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쉼표를 사용해 설명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쉼표에는 수용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되는데 백인들의 것 또는 백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인종과 관련한 것에는 자주 붙는다. 설명형 쉼표는 미디어의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prototyping) 문제를 상기시킨다. 미디어는 정형화를 통해 소수인종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평범하며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뉴스 미디어는 신속하게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형화를 더욱 필요로 한다.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정형화된 소수인종을 이야기거리로 자주 활용한다. 시청자와 광고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성을 증대하고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그러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흑인에 대한 정형화와 흑인 외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며 혹은 지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상대적 비가시성(relative invisibility)이 특정 소수인종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를 통해 집단적인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종이 성별이나 국적 등 다른 문제와 함께 재현될 때 상대적 비가시성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상대적 비가시성의 대상이 되는 소수인종은 미디어에서 자신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위축된다. 동시에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수인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해진다.

<표1> 살인 사건 피해자 비율				<표2>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인종	실제 피해자(a)	TV뉴스 속 피해자(b)	차이 (b-a)	인종	실제 가해자(a)	TV뉴스 속 가해자(b)	차이 (b-a)
흑인	28%	23%	-5%p	흑인	21%	36%	+15%p
백인	13%	43%	+30%p	백인	27%	25%	-2%p
라틴계	54%	19%	-35%p	라틴계	47%	23%	-24%p
⋮	⋮	⋮	⋮	⋮	⋮	⋮	⋮
전체	100%	100%		전체	100%	100%	

* <표1>과 <표2>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방송된 범죄 관련 TV뉴스를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종에 따른 비율이다. <표1>과 <표2>에 나타난 실제 피해자와 실제 가해자 비율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범죄통계자료(Criminal Justice Profile)에 근거하였다.

- 1-1. <가>의 ‘슈터 편견’을 설명하고, <나>를 활용해 이 현상을 기술하시오. (300±30자)
- 1-2. <표1>, <표2>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와 <다>를 토대로 해석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에서는 표적 대상의 인종이 사람들의 사격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슈터 편견 현상과 이를 이중처리이론의 직관적 양식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또한, 백인, 흑인, 라틴계의 실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과 TV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미디어의 정형화, 설명적 심표, 상대적 비가시성 개념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가>는 미국에서 슈터 편견을 검증한 실험 연구를 소개하면서, 슈터 편견은 미국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나>는 이중처리이론의 핵심 기제인 직관적 양식과 숙고적 양식의 차이점을 토대로 두 양식이 정보처리에 관계하는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다>는 흑인, 백인, 소수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메커니즘을 설명적 심표, 정형화, 상대적 비가시성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결국, 슈터 편견을 통해 흑인에 대한 보편적 차원에서 차별적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직관적 모드를 통해 인지적 노력 없이 무의식적이며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지 묻고자 했다. 또한, 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정에 작동하는 기제를 지문에 소개된 개념들을 통해 설명하도록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나>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찰관의 딜레마: 인종에 근거한 잠재적 위험성 해결	코렐, 파크, 위튼브링크 & 주드	미국 심리학회	2002	1314-1329	제시문<가>	○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김영사	2018	141-164	제시문<나>	○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	휘트니 필립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174-185	제시문<다>	○
TV뉴스, 어떻게 봐야 하나?	포스트만 & 파워즈	참미디어	1995	151-164	제시문<다>	○
텔레비전 뉴스의 흑인과 라티노 재현	딕슨 & 린즈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131-154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코렐, 파크, 위튼브링크 & 주드 (2002). 경찰관의 딜레마: 인종에 근거한 잠재적 위험성 해결. 미국 심리학회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 83권 6호, 1314-1329쪽.

<가>는 슈터 편견에 관한 연구 결과다. 비디오 게임을 응용해 3차례의 실험에서 표적으로 등장하는 인종(백인, 흑인)이 참가자들의 사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슈터 편견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참가자들은 무장한 백인 표적보다는 무장한 흑인 표적에 총을 더 빨리 쏘았고, 비무장 흑인 표적보다는 비무장 백인 표적일 때 총을 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 백인과 흑인 참여자 모두 슈터 편견을 드러냈고, 미국 문화가 흑인을 공격적이며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한 참가자에게서 슈터 편견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는 슈터 편견이 흑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한 문화적 차원의 적대적 고정관념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 : 대니얼 카너먼 (2018).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141-164쪽.

<나>는 이중처리이론의 두 시스템인 직관적 양식(associative mode)과 숙고적 양식(reflective mode)의 특징을 비교한다. 직관적 양식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체득한 지식체계로 인지적인 노력 없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빠르게 정보를 처리한다. 숙고적 양식은 규칙을 기반으로 복잡한 계산 등을 처리하는 정신 활동으로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나>는 직관적 양식은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는 대신 편향에 사로잡혀 무엇을 믿거나 확신하는 오류 가능성이 크고, 숙고적 양식은 판단의 오류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다> : 휘트니 필립스(2018).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 174-185쪽.

포스트만·파워즈(1995). 『TV뉴스, 어떻게 봐야 하나?』, 참마당, 151-164쪽.

<표1>과 <표2> : 딕슨 & 린즈 (2000). 텔레비전 뉴스의 흑인과 라티노 재현.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회, 제50권 2호, 142-151쪽.

<다>는 미국의 흑인과 흑인 외 소수인종이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과정에 담긴 메커니즘 일부를 소개한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는 이들에게 인종적으로 코드화된 설명형 쉽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쉽표에는 수용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담는다. 그러나 백인에게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뉴스와 오락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콘텐츠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정형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소수인종의 경우는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에서 소외, 배제, 삭제 등을 통해 잘 보이지 않는 상대적 비가시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논제의 구성

1. <가>의 '슈터 편견'을 설명하고, <나>를 활용해 이 현상을 기술하시오. (300±30자)

(<가>의 슈터 편견)

- <가>의 슈터 편견은 실험 참가자들이 표적에 대한 사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표적의 인종(백인, 흑인)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즉, 무장한 백인 표적보다는 무장한 흑인 표적에 총을 더 빨리 쏘고, 비무장 흑인 표적보다는 비무장 백인 표적일 때 총을 쏘지 않는 결정을 더 빨리 내리는 편견

이다.

- 슈터 편견은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흑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보다는 흑인은 폭력적 존재라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강한 참가자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나〉의 내용 활용)

- 〈나〉에서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직관적 양식과 숙고적 양식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 직관적 양식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지식(고정관념)을 토대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한다. 따라서 대상과 관련한 인지적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
- 숙고적 양식은 규칙 기반의 정보처리로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느리다.
- 〈가〉의 슈터 편견은 직관적 양식에 의한 결과로, 모호한 상황에서 위험한 표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슈터 편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표적에 사격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 <표1>, <표2>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와 <다>를 토대로 해석하시오. (600±60자)

(〈표1〉과 〈표2〉의 내용 분석)

- 〈표1〉에 따르면 백인은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살인사건 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된다. 즉, 백인의 피해자성이 두드러진다.
- 〈표2〉에서 흑인은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실제 사건 가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가해자 집단으로 묘사된다. 즉, 흑인의 가해자성이 두드러진다.
- 〈표1〉과 〈표2〉에서 라틴계는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와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모두 가장 높지만, TV뉴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즉, 라틴계는 TV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
- 백인의 피해자성은 〈가〉의 슈터 편견 실험과 〈다〉의 정형화 개념을 토대로, 미디어에서 백인은 흑인의 공격성에 의한 피해자이자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긍정적 존재로 정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흑인의 가해자성은 〈다〉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미국에서 이들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설명적 심표나 뉴스 및 오락 콘텐츠의 이야깃거리를 위한 소재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정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라틴계의 경우,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과정에서 상대적 비가시성(소외, 배제, 삭제)이 작용한 결과다.
- 흑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정형화로 인해 부정적 고정관념이 고착되고 있지만, 라틴계는 정형화보다는 사회적 재현에서 보이지 않는 범주로 주변화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에 대한 설명】 ① 슈터 편견은 참가자들이 표적의 인종에 따라 표적에 대한 사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비디오 게임을 활용한 실험 연구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② 슈터 편견은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슈터 편견은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강한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개인적 고정관념 수준과는 무관하다. 【제시문 <나>에서 직관적 모드 적용】 ④ 신속한 판단(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슈터 편견의 활성화는 숙고적 양식이 아니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직관적 양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음(숙고적 양식을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⑤ 모호한 상황(혹은 복잡한 배경)에서 충을 가진 위험한 표적을 (갑자기) 마주한 참가자들의 슈터 편견이 자동으로 활성화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표적에 더 사격하는 오류가 발생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했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했으나 ⑤가 없는 경우	4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없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1>과 <표2>의 내용에 대한 분석】	

- 통계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① <표1>에서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백인의 살인사건 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됨. <표2>에서 흑인은 실제 사건 가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가해자 집단으로 등장함 ② <표1>과 <표2>에서 라틴계는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와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모두 가장 높지만, TV뉴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지는 경우가 매우 적음 【제시문 <가>와 <다>의 논지 파악과 적용】 <표1>과 <표2>의 결과를 <가>의 슈터 편견 및 <다>의 설명적 쉼표, 정형화, 상대적 비가시성 개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 【제시문 <가>와 핵심】 ③ 백인의 피해자성 - 미디어에서 백인은 흑인의 공격성에 의한 피해자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긍정적 존재로 정형화됨 【제시문 <다>의 핵심】 ④ 흑인의 가해자성을 설명적 쉼표와 미디어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정형화로 설명 <가>의 슈터 편견 연구처럼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설명적 쉼표나 뉴스 및 오락의 소재로 고정관념이 정형화됨 ⑤ 라틴계에 대한 상대적 비가시성 - 소수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과정에서 소외, 배제, 삭제라는 상대적 비가시성이 작용함 ⑥ 흑인과 라틴계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차이 강조 - 흑인과는 달리 라틴계는 정형화보다는 미디어 재현에서 보이지 않는 주변부성을 띠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했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 ⑥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 ⑥이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와 ⑥이 없는 경우	5등급
③, ④를 충족하고, ①, ②, ⑤, ⑥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③, ④를 충족하고, ①, ②, ⑤, ⑥이 없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이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1-1.

<가>의 슈터 편견은 모의 사격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표적에 대한 사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표적의 인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백인과 흑인 참가자 모두 슈터 편견을 드러냈고, 흑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보다는 흑인은 폭력적 존재라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강한 참가자에게서 슈터 편견이 더 두드러졌다. <나>에 따르면, 슈터 편견은 규칙 기반의 인지적 정보처리를 의미하는 숙고적 양식이 아니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직관적 양식의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호한 상황에서 위험한 표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슈터 편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표적에 사격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1-2.

<표1>에 따르면 백인은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살인사건 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된다. <표2>에서 흑인은 실제 사건 가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가해자 집단으로 등장한다. 한편, <표1>과 <표2>에서 라틴계는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와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이 TV뉴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TV뉴스에서 백인의 피해자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가>에 나타난 슈터 편견 실험 결과가 시사하듯이 미디어에서 백인은 흑인의 공격성에 의한 피해자이자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긍정적 존재로 정형화된 결과다. 흑인의 가해자성은 미국 사회에 이들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설명적 썸표나 뉴스 및 오락 콘텐츠의 이야기거리를 위한 소재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정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계의 상황은 소수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과정에서 소외, 배제, 삭제라는 상대적 비가시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흑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정형화로 인해 부정적 고정관념이 고착되고 있다면, 라틴계는 정형화보다는 사회적 재현에서 보이지 않는 범주로 주변화되고 있다.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 기술, 타자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주나라 목왕이 서쪽으로 민정을 살피는 수렵을 나갔을 때에 곤륜산 경계를 넘어 태양이 잠긴다고 하는 엄산까지 가려다가 도달하지 못한 채 왕도로 되돌아오는데 아직 중국 본토에 미치지 못했을 적의 일이다. 도중에 무엇이든 잘 만들 수 있다는 연사(偃師)라는 기술자가 있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 왕이 물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연사가 말하였다.

“신은 오직 명령하시는 바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만들기를 끝낸 것도 있사오니 원컨대 왕께서 먼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왕이 말했다.

“내일 가지고 오너라. 같이 한번 보자꾸나.”

다음 날에 연사가 왕을 알현하러 왔으므로 왕이 가까이 오라해서 말하였다.

“너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연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이 만든 인형이온데 연기(演技)를 잘합니다.”

목왕이 놀라서 바라보자니, 앞으로 내딛고 걸으며 아래로 몸을 굽히고 머리를 들고 우러러보는 동작이 정말 사람하고 꼭 같았다. 연사가 그 턱을 건드려주니 곧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음률과 들어맞고, 그 손을 추켜들면 곧 춤을 추는 것이 절도에 호응되어 천변만화하되 뜻하는 바와 들어맞았다.

총애하는 미희(美姬)와 주위에 따르는 여러 시종들을 데리고 같이 동작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그러한 연기가 끝나갈 무렵 그 인형은 자기 눈을 껌벅거리더니 왕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시종을 불러내는 것이었다. 왕이 오싹하여 그 자리에서 인형을 베어 죽이려 하였고 연사는 몹시 두려워 곧바로 그 인형을 해부하여 흩어놓고 왕한테 보여주었다. 모두 가죽과 나무에 아교와 옷칠을 입히고 희고 검고 붉고 푸른색의 단청을 칠한 것들을 모아 붙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왕이 그 재료들을 자세히 헤아려보니 안쪽에는 심장, 간, 쓸개, 폐 등이요, 밖에는 근육, 뼈마디, 사지, 살가죽, 터럭, 치아 등이 있었는데 다 가짜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다시 해체된 조각을 모아 합쳐놓으니 처음의 상태와 같아졌는데 왕이 시험 삼아 심장을 떼어놓으면 입이 말을 못하고, 쓸개를 떼어놓으

면 다리로 걷지를 못하였다. 목왕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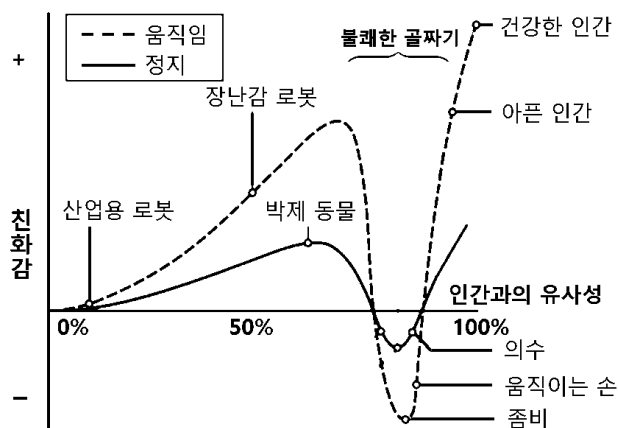
“사람의 기교라 해도 이만하면 가히 조물주와 더불어 동등한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명을 내려서 왕의 예비 마차에 연사와 그 인형을 태우고 돌아갔다.

<나>

로봇공학자 모리 박사가 펼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건강한 인간을 인간과의 유사성 100%로 두고, 그에 대해 느끼는 인간의 친화감을 100%로 설정한다. 반대편에는 인간의 외형과는 명확히 다른 산업용 로봇을 놓는데 유사성과 친화감 모두 매우 낮다.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장난감 로봇처럼 인간의 외형과 움직임을 모방했지만 인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기계 장치에는 친화감이 높아진다. 하지만 닮음의 수준이 크게 상승해서 외형이 인간의 모습에 훨씬 근접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인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이 추가될 때, 가령 ‘움직이는 손(myoelectric hand)’과 같은 것에 이르면 친화력 수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인간에 성큼 다가선 이질적 존재로 인해 으스스하고 불안한 지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모리 박사는 이러한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했다.



친화감 그래프의 선은 첫 정점까지는 인간과의 외형적 유사성에 비례해서 꾸준히 올라가지만 인공 장치에 인간을 닮은 움직임이 가미되면 골짜기 아래로 툭 떨어진다.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외형의 유사성에 가려져 있던 이질감이 불현듯 지각되기 때문이다. 불쾌한 골짜기는 그 그래프의 낙차를 반영한 개념이다. 가령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에 비례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불쾌한 골짜기는 로봇의 인간과의 유사성과 지각자의 친화 관계가 정점을 기점으로 반비례해서 지각자가 불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리 박사의 이론이 지닌 특이성을 짚고 가기로 하자. 첫째, 그의 고찰은 로봇공학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지만 체계적인 실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설이다. 즉,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기대어 논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검토 가능한 인문학적 사례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검토 및 실증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 모리 박사가 인간과 기계 장치 사이의 안전한 거리에 주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논문의 결론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 알기 위해 반드시 불쾌한 골짜기에 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로봇 등 인공 장치들은 그래프의 첫 정점에서 멈춘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가령 안경은 인간의 눈알을 닮지 않았기에 매력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

기억해 달라. 내가 기록하는 건 광인(狂人)의 망상이 아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확실히 단언하는 사건 역시 실제로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발견의 단계는 명확하고 개연성이 있었다. 밤낮으로 지독한 중노동과 피로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나는 드디어

개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찾아냈다. 아니, 그보다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생명 없는 육신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열망으로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온전히 바쳤다. 시체안치소에서 유골을 수집하며, 해부실에서 상당량의 재료를 조달받았다. 사지는 비율을 맞추어 제작하였고, 생김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다. 외형이 완성되어 갈수록 녀석에게서 생의 동행자 같은 호감이 깊어갔다.

하지만 다 이루던 순간, 아름다웠던 꿈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혐오만이 내 심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내가 창조해낸 괴물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뛰쳐나와 오랫동안 침실을 서성였지만, 도저히 마음을 진정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내 최초의 격량이 지나가고 극도의 피로가 찾아왔다. 그래서 옷을 다 걸친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실험실에서 그가 깨어나던 순간이 또렷이 떠오른다. 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시무시함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미라도 그 괴물처럼 두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완의 상태에서 녀석을 찬찬히 뜯어본 적은 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나 평온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느낌은 사라지고 단테조차 상상 못했을 괴물로 느껴졌다. 움직임이 그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실체를 내 눈앞에 핵 끌어낸 것이리라. 식은땀이 이마를 덮었고, 이가 딱딱 부딪고 팔다리는 경련이 났다. (...)

희미한 노란색 달빛이 억지로 창문 셔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눈앞에 그 괴물이 보였다. 내가 창조해낸 괴물이. 그는 침대 커튼을 들쳤다. 그 눈은, 꿈쩍도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려하자 뺨이 주름졌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한 손이 뻗쳐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를 붙잡으려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뿌리치고 층계를 황급히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집에 딸린 안뜰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끔찍한 괴로움에 밤새도록 서성거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그토록 참담하게 생명을 불어넣은 괴물이 다가올까 두려움에 떨었다.

-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2-1. <가>와 <나>에 나타난 불쾌감의 공통점을 쓰고, 그 극복 방식의 변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300±30자)

2-2. <다>에 나타난 '나'의 행위 및 심리적 변화를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을 닮은 로봇에 대한 기술도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로봇과의 공존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 문항의 지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가>는 동양의 고전 우화(寓話)에서 뽑은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형이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왕이 이를 즐기다가 불현듯 섬뜩한 느낌을 받지만, 그 인형이 제어 가능한 존재란 걸 알고 곧 기뻐하며 함께 수도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나>는 현대 과학 논문에서 뽑은 것이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박사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다가 불현듯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듯하다. 인간을 닮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느 순간 급격히 섬뜩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벼운 과학 논문으로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공물이 사람과 외형적으로 유사성이 많이 높아지고, 그것에 동작까지 가미되면 인간은 그제서야 인공물이 인간이 닮지 않은 점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불쾌함이 생겨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인간의 모습과 다른 디자인을 추구함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는 서양의 근대 소설인 프랑켄슈타인에서 발췌한 것이다. 발췌한 부분은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어느날 무생명한 것에 생명을 불어 넣는 방법을 알게 되자 이 지식을 활용하여 시체를 짜맞춘 것에 생명을 불어 넣게 되는데 처음에는 친밀감을 가지고 그 존재를 마주하였지만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드디어 움직이는 순간이 오자 섬뜩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인간이 만든 인간 아닌 것’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로봇의 발전상에 관한 뉴스. 그것을 대하는 우리 마음속 풍경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 존재들의 사람 같음’으로 인해 두려움도 느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다>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시문 <가>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열자(列子)	열자 지음, 유덕선 번역	홍문관	2014	237~238		×
불쾌한 골짜기 내외(『현대미술학 논문집』 26권, 제1호)	강수미	현대미술학회	2022	7~30		○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김선형 옮김	문학동네	2012	64~65, 72~73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열자 지음, 유덕선 번역,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 홍문관, 2014, 237~238면.

목왕은 수도로 돌아오는 길에 연사라는 기술자가 만든 인형을 본다. 그 인형은 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닮았으며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이 인형이 공연 도중 왕의 시종들에게 눈짓을 하는데 그 모습이 왕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권역을 침해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왕이 인형을 베어버리라 하자 연사는 그 인형은 진짜 사람이 아니며 단순한 물질들끼리의 결합임을 보인다. 그것을 보고 왕 또한 이리저리 살피며 조작한 결과 그것이 통제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써 왕은 불쾌함을 거두고 이들을 데리고 수도로 돌아간다.

제시문 <나> : 강수미, 「불쾌한 골짜기 내외」, 『현대미술학 논문집』 26권 제1호, 현대미술학회, 2022, 7~30면. (부분 재구성)

로봇공학자 모리 박사의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아질 때, 초기에는 친밀감이 높아지지만, 어느 순간을 지나면 불쾌한 느낌을 유발한다는 일종의 가설이다. ‘움직이는 로봇’ 같은 초기의 유사성에는 친밀도가 높아지다가 정점을 지나면 급격히 친밀도가 떨어지며 불쾌함이 느껴지는 골짜기가 생겨나는데 이때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움직임’의 요소이다. 움직임이 가미되면 인간과의 유사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그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이질감’이 불현듯 부각되면서 인공물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리 박사는 ‘디자인의 차별화’를 제안한다. 친밀도의 정점에 머무를 정도의 디자인을 유지함으로써 불쾌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다> : 메리 셸리, 김선형 옮김,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12, 64~65, 72~73면. (부분 재구성)

나는 어느 순간 무생명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시신의 부분들을 조달하며 점차 사람과 흡사한 모양의 괴물을 만들어 나갔다. 모양이 점차 완성되어 가면서 그 석이 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것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던 순간, 즉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던 순간, 나는 그 괴물의 실체를 불현듯 깨닫게 된다. 평온하게만 보이던 그의 모습들이 흉측한 괴물로 바뀌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무시무시함에 사로잡힌 나는 실험실을 뛰쳐나와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괴물 또한 방으로 다가와서 나를 응시한다. 그가 움직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 논제의 구성

2.1 <가>와 <나>에 나타난 불쾌감의 공통점을 쓰고, 그 극복 방식의 변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300±30자)

<가>에서의 불쾌감이란 문맥상 목왕이 느낀 '오싹함'이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목왕은 인형이 자신의 시종을 불러내는 장면을 보자 오싹함이라는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인간을 닮은 것이 자신의 권한 영역으로 들어서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에서의 불쾌감이란 '움직이는 손' 등이 주는 으스스함을 뜻한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을 전혀 닮지 않았거나, 닮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은 오히려 친밀감을 느낀다. 하지만 닮음이 정점을 지나고 그것에 움직임이 가미되면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인간과의 유사도가 크게 증가하여 인간의 영역에 접근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불쾌감의 공통점은 '인간이 만든 것[인공물]이 인간의 영역으로 접근함으로써(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가>의 후반부에서 왕은 기쁘게 웃으며 그들을 태우고 수도로 돌아간다. 인형이 주는 불쾌감을 극복한 것인데, 그 근본 원인은 그 인형이 언제든지 제어 가능한 존재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앞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라 하겠다. <나>의 후반부에서 모리 박사는 불쾌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과 거리를 둔 디자인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는 '제어 방식 확보(=통제 방식의 확보)'이고, <나>는 '디자인(=생김새)의 분별'이다.

2.2 <다>에 나타난 '나'의 행위 및 심리적 변화를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하시오. (600±60자)

<다>의 나는 시신의 조각들을 모아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한다. 또한 그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친밀감을 가지고 대하지만, 그것의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자 섬뜩함을 느끼고 그를 피해 방으로 피신한 채 두려움에 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와 심리는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닮은 면이 많다. 먼저 둘은 '인간이 창조한 인간을 닮은 존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마주할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

이 문항은 <나>와 <다>의 지문을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의 공통점을 심리적 추이에 맞추어 잘 대응시키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인공물을 만드는 행위 - 초기의 친근감 - 움직임을 느끼자 불현듯 느끼는 두려움(불쾌감)'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 출제되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쾌감의 공통점】 ① '인간에 만든 인간을 닮은 존재(인간을 닮은 인공물)'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함. ② <가>와 <나>를 요약하면서 '인간의 영역에 접근(다가섬)'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함. 【극복 방식의 변별점】 ③ <가>는 '제어 가능성' 또는 '통제 가능성' 또는 '원리의 이해(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나>는 '디자인의 변별' 또는 '다르게 생긴 것' 또는 '인간 외형과의 거리감'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3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2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1개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중 1개 미만을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문제 2-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쾌한 골짜기의 이해】 ① 인간을 닮은 인공물을 대하는 초기감정은 친밀함, 후기 감정은 불쾌감(오싹함, 으스스함, 두려움 등도 가능)을 이해함. ② 불안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이유가 '인간을 닮아 있는 상황 + 움직임'이고, '움직임이 생길 때 그간 지각하지 못했던 이질감이 갑자기 지각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해야 함. 【나의 행동과 심리적 변화의 이해】 ③ <나>의 '인공물을 만드는 행위'가 <다>의 '괴물을 만드는 행위'에 대응함을 알고 있어야 함.	

④ <나>의 초기에 보이는 친근감의 상승이 <다>의 괴물을 대하는 심리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 ⑤ <나>의 불쾌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순간이 <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 특히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는 장면'을 언급하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 갑자기 괴물을 이질적인 존재로 자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4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 미만을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2-1.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을 닮은 인공물이 인간의 영역에 접어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불쾌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의 인형은 왕의 권력에 접근함으로써 왕의 불쾌감을 자아냈고, <나>의 '움직이는 손'과 같은 인공물은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인간의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불쾌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 둘의 극복 방식은 변별된다. <가>에서는 인형의 행동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했고, <나>에서는 인간의 외형과는 다른, 즉 인간의 모습과 '변별되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2.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인간을 닮은 인공물이 인간과 유사해질 때 생기는 심리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는 인간과 닮은 것에 친밀감을 느끼나, 그것이 인간 외형을 점차 닮아가고 여기에 움직임까지 가미되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유는 움직임이 외형의 이질감을 자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의 나의 행위 및 심리적 변화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대응된다. 먼저 이 둘은 인간이 인간을

닮은 인공물을 만드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나>의 인공물은 <다>에서는 괴물로 나타난다. 다음 <나>의 초기 단계의 친밀감은 <다>의 초기 괴물과의 친밀감으로 나타난다. <나>에 따르면 인간의 외형을 닮아갈 때 친밀감도 높아지는데 <다>도 괴물의 외양이 완성될수록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정점을 지나면 급격한 불쾌감의 골짜기로 빠진다고 보는데 <다> 또한 이 현상이 나타난다. <나>에 따르면 급격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이 오히려 외형의 이질감이 자각시키면서 불쾌감이 생겨난다고 본다. <다>에서 움직이지 않던 괴물을 평온하게 느끼던 '나'가, 그의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자 불현듯 그 실체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2-5. 문항카드 ⑤ <자연계열 1회차 1, 2, 3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1-1, 1-2, 2-1, 2-2, 3-1, 3-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연속함수, 도함수, 롤의 정리, 이계도함수, 함수의 증가와 감소, 정적분, 주기함수, 치환적분법,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의 근
예상 소요 시간	9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가>

- 함수 $f(x)$ 가 열린구간 (a, b) 에서 $f''(x) < 0$ 이면 그 구간에서 $f'(x)$ 는 감소한다. 이때,
 1) 열린구간 (a, b) 에 속하는 어떤 실수 c_1 에 대하여 $f'(c_1) > 0$ 이면, 열린구간 (a, c_1) 에서 $f'(x) > 0$ 이므로 함수 $f(x)$ 는 열린구간 (a, c_1) 에서 증가한다.
 2) 열린구간 (a, b) 에 속하는 어떤 실수 c_2 에 대하여 $f'(c_2) < 0$ 이면, 열린구간 (c_2, b) 에서 $f'(x) < 0$ 이므로 함수 $f(x)$ 는 열린구간 (c_2, b) 에서 감소한다.

● <롤의 정리>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 (a, b) 에서 미분가능할 때, $f(a) = f(b)$ 이면 $f'(c) = 0$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①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 = 0$, $f(b) = 0$ 을 만족시킬 때, 열린구간 (a, b) 에서 $f''(x) < 0$ 이면, 닫힌구간 $[a, b]$ 에서 $f(x) \geq 0$ 이다.

- 함수 $g(x) = \sqrt{x}$, $h(x) = x$ 에 대하여, 부등식

$$\int_0^1 h(x) dx \leq \int_0^1 g(x) dx \quad \dots\dots (1)$$

가 성립함을 보이자.

함수 $F(x) = g(x) - h(x)$ 는 $F(0) = 0$, $F(1) = 0$ 이고,

열린구간 $(0, 1)$ 에서 $F''(x) = -\frac{1}{4x\sqrt{x}} < 0$ 이다.

그러면 명제 ①에 의하여 닫힌구간 $[0, 1]$ 에서 $F(x) \geq 0$ 이므로

이 구간에서 $h(x) \leq g(x)$ 이고 부등식 (1)이 성립한다.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에 있는 명제 ①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1-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는 열린구간 (a, b) 에서 $f''(x) < 0$ 을 만족시킨다.

이때, $(b-a)\{f(a)+f(b)\} \leq 2 \int_a^b f(x) dx$ 임을 보이시오.

<다>

함수 $y=f(x)$ 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에 대하여 $f(x+p)=f(x)$ 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 가 존재할 때, 함수 $y=f(x)$ 를 주기함수라 하고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두 주기함수의 곱의 정적분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연속함수 $G(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x+\pi)=G(x)$ 를 만족시킬 때,

임의의 자연수 n 에 대하여 $a = \int_0^{2\pi} G(x) \sin x dx$, $b = \int_{2n\pi}^{2(n+1)\pi} G(x) \sin x dx$ 라 하면,

$a=b=0$ 임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x-2n\pi=t$ 로 놓으면, $\frac{dx}{dt}=1$ 이고, $b = \int_0^{2\pi} G(t+2n\pi) \sin(t+2n\pi) dt = \int_0^{2\pi} G(t) \sin t dt = a$ 이다.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적분 구간을 나누면

$$a = \int_0^{2\pi} G(x) \sin x dx = \int_0^{\pi} G(x) \sin x dx + \int_{\pi}^{2\pi} G(x) \sin x dx \quad \dots\dots (1)$$

이다.

이때, $\int_{\pi}^{2\pi} G(x) \sin x dx$ 의 값을 구하기 위해, $x-\pi=u$ 로 놓으면 $\frac{dx}{du}=1$ 이고

$$\int_{\pi}^{2\pi} G(x) \sin x dx = \int_0^{\pi} G(u+\pi) \sin(u+\pi) du = - \int_0^{\pi} G(u) \sin u du \quad \text{이다.}$$

따라서 (1)에 의하여 $a=0$ 이다.

<라>

$\int_{-1}^1 \frac{1}{e^x+1} dx$ 의 값을 생각해보자.

$$\int_{-1}^1 \frac{1}{e^x+1} dx = \int_{-1}^1 \frac{e^{-x}}{1+e^{-x}} dx = -[\ln(1+e^{-x})]_{-1}^1 = -\ln \frac{1+e^{-1}}{1+e} = 1 \quad \text{이다.}$$

$$\text{한편, } \int_{-1}^1 \frac{1}{e^x+1} dx = \int_{-1}^1 \frac{e^x}{e^x+1} dx \quad \text{이다.}$$

제시문 <다>와 <라>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2-1. 연속함수 $g(x)$ 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x+1)=g(x)$ 를 만족시키고, 연속함수 $h(x)$ 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x+2)=h(x)$ 를 만족시키고 $h(x)=\begin{cases} x & (0 \leq x < 1) \\ 2-x & (1 \leq x < 2) \end{cases}$ 이다.

정적분 $\int_0^2 g(x)h(x)dx$ 의 값을 A 라 할 때, 임의의 자연수 n 에 대하여 정적분 $\int_{2n}^{2(n+1)} g(x)h(x)dx$, $\int_0^1 g(x)dx$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2-2. 연속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0$ 이고 $f(x)f(-x)=1$ 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int_{-1}^1 \frac{1}{\{f(x)\}^4 + 1} dx$ 의 값을 구하시오.

<마>

●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차방정식 $ax^2+bx+c=0$ 의 두 근을 α, β 라 하면 $\alpha+\beta=-\frac{b}{a}$, $\alpha\beta=\frac{c}{a}$ 이다.

<바>

② 이차방정식 $F(x)=0$ 의 두 근이 유리수이면 방정식 $F'(x)=0$ 의 근은 유리수이다.

a, b 는 실수이고 $a \leq \frac{1}{4}$ 일 때, 삼차함수 $f(x)=(x^2+x+a)(x-b)$ 를 생각해보자. 이때,

$$x^2+x+a=\left(x+\frac{1}{2}\right)^2-\frac{1}{4}+a=\left(x+\frac{1}{2}\right)^2-\frac{1-4a}{4} \text{ 이다.}$$

따라서 두 방정식 $f(x)=0, f'(x)=0$ 은 각각

$$\left\{\left(x+\frac{1}{2}\right)^2-\frac{1-4a}{4}\right\}\left\{\left(x+\frac{1}{2}\right)-\left(b+\frac{1}{2}\right)\right\}=0, \quad \dots\dots (1)$$

$$3\left(x+\frac{1}{2}\right)^2-2\left(b+\frac{1}{2}\right)\left(x+\frac{1}{2}\right)-\frac{1-4a}{4}=0 \quad \dots\dots (2)$$

이 된다. 이제

$$x+\frac{1}{2}=t, \quad b+\frac{1}{2}=u, \quad \frac{1-4a}{4}=v^2 \quad \dots\dots (3)$$

으로 놓으면, x 에 대한 삼차방정식 (1)은 t 에 대한 삼차방정식

$$(t^2-v^2)(t-u)=0 \quad \dots\dots (4)$$

이 된다.

이때, 방정식 (4)의 근 u 와 $\pm v$ 가 유리수이면 (3)에 의해 b 는 유리수가 되고 $1-4a=4v^2$ 이므로

x 에 대한 삼차방정식 $f(x)=0$ 의 세 근 $\frac{-1 \pm 2v}{2}$, b 는 유리수이다.

이때, 방정식 (4)의 좌변을 t 에 대하여 미분한 후, 방정식

$$3t^2 - 2ut - v^2 = 0 \quad \dots\dots (5)$$

을 생각하면, 방정식 (5)는 (3)에 의해 방정식 (2)와 같다. t 에 대한 이차방정식 (5)의 근은

$$\frac{u \pm \sqrt{u^2 + 3v^2}}{3} \quad \dots\dots (6)$$

이다.

제시문 <마>와 <바>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3-1. b 가 자연수일 때, 삼차함수 $g(x) = x(x-1)(x-b)$ 에 대하여 방정식 $g'(x) = 0$ 의 두 근이 동시에 정수가 될 수 없음을 제시문 <마>를 이용하여 보이시오.

3-2. 제시문 <바>에 있는 명제 ②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또한 t 에 대한 삼차방정식 (4)에서 $u = 1$ 일 때, 제시문 <바>에 있는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세 방정식 $f(x) = 0$, $f'(x) = 0$,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4 이하의 자연수 v 를 식 (6)을 이용하여 모두 찾고, 이에 대응하는 삼차함수 $f(x) = (x^2 + x + a)(x - b)$ 를 각각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명제, 함수, 방정식,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제들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계도함수의 성질, 정적분, 주기함수, 방정식의 근 등에 대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가>, <나>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II02-07]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한다.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II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0]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항1-1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7]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1-2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2-10]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다>, <라>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2-1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2-2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마>, <바>	[10수학01-07]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항3-1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3-07]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항3-2	[10수학01-07]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2-10]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58-65, 199-201
	고등학교 수학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54-56, 60-62, 75-78

	고등학교 수학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80-96
	고등학교 수학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81-88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0	62-67, 123-131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0	65-68, 78-81, 83-89, 121-126
	고등학교 미적분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102-108, 140-144, 155-156
	고등학교 미적분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0	134-139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와 <나>에서는 연속인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 의 도함수 $f'(x)$ 와 이계도함수 $f''(x)$ 의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문제 1-1>에서는 함수 $f(x)$ 의 도함수 $f'(x)$, 이계도함수 $f''(x)$ 의 관계와 <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2>에서는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정적분에 대한 한 예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두 주기함수의 곱의 정적분을 주기함수의 성질, 치환적분법 등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어떤 정적분의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2-1>에서는 주기함수가 포함된 어떤 연속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2>에서는 연속함수 $f(x)$ 의 성질과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정적분의 계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차방정식 $F(x) = 0$ 의 근으로부터 방정식 $F'(x) = 0$ 의 근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 어떤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방정식 $f(x) = 0$,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인 경우를 소개한다. <문제 3-1>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2>에서는 주어진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제시문 <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정식 $f(x) = 0$, $f'(x) = 0$,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함수 $f(x)$ 를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2	①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② 제시문 <가>와 <나>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1-1>에서는 주어진 함수 $f(x)$ 에 대하여 <롤의 정리>를 적절히 이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④ <1-1>에서는 주어진 함수 $f(x)$ 에 대하여 도함수 $f'(x)$, 이계도함수 $f''(x)$ 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⑤ <1-2>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함수를 적절히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⑥ <1-2>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와 5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1 2-2	① 제시문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② 제시문 <다>와 <라>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2-1>에서는 정적분 $\int_{2n}^{2(n+1)} g(x)h(x)dx$의 값을 정확히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④ <2-1>에서는 정적분 $\int_0^1 g(x)dx$의 값을 정확히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⑤ <2-2>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조건을 풀이에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평가한다. ⑥ <2-2>에서는 주어진 정적분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와 5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1 3-2	①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② 제시문 <마>와 <바>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3-1>에서는 삼차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맞게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④ <3-1>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⑤ <3-2>에서는 명제 ②를 정확히 증명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⑥ <3-2>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함수를 알맞게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와 5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 1-1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인 함수 $f(x)$ 가 열린구간 (a, b) 에서 $f''(x) < 0$ 이므로 함수 $f(x)$ 는 열린구간 (a, b) 에서 미분 가능하다. 또한 $f(a) = f(b) = 0$ 이므로 <롤의 정리>에 의하여 $f'(c) = 0$ 인 c 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데 함수 $f(x)$ 가 열린구간 (a, b) 에서 $f''(x) < 0$ 이므로 이 구간에서 $f'(x)$ 는 감소한다. 따라서 $f'(c) = 0$ 을 만족시키는 c 가 열린구간 (a, b) 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한편 열린구간 (a, b) 에서 $f'(x)$ 는 감소하고 $f'(c) = 0$ 이므로 함수 $f(x)$ 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i) 열린구간 (a, c) 에서 $f'(x) > 0$ 이므로 함수 $f(x)$ 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ii) 열린구간 (c, b) 에서 $f'(x) < 0$ 이므로 함수 $f(x)$ 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또한 $f(a) = 0$ 이므로 (i)에 의하여 열린구간 (a, c) 에서 $f(x) > 0$ 이고, $f(b) = 0$ 이므로 (ii)에 의하여 열린구간 (c, b) 에서 $f(x) > 0$ 이다. 따라서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므로 이 구간에서 $f(x) \geq 0$ 이다.

■ 1-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닫힌구간 $[a, b]$ 에서 두 점 $(a, f(a))$ 와 $(b, f(b))$ 를 지나는 일차함수 $h(x) = \frac{f(b)-f(a)}{b-a}(x-a) + f(a)$ 의 그래프를 생각하자.

이때, 함수 $F(x) = f(x) - h(x)$ 는 $F(a) = 0$, $F(b) = 0$ 을 만족시킨다.

열린구간 (a, b) 에서 $F''(x) = f''(x) - h''(x) = f''(x) < 0$ 이므로

명제 ④에 의하여 닫힌구간 $[a, b]$ 에서 $F(x) \geq 0$ 이다.

따라서 닫힌구간 $[a, b]$ 에서 $\int_a^b F(x)dx = \int_a^b \{f(x) - h(x)\}dx = \int_a^b f(x)dx - \int_a^b h(x)dx \geq 0$ 이므로

$\int_a^b h(x)dx \leq \int_a^b f(x)dx$ 이다.

$$\begin{aligned} \text{한편 } \int_a^b h(x)dx &= \int_a^b \left\{ \frac{f(b)-f(a)}{b-a}(x-a) + f(a) \right\} dx \\ &= \left[\frac{1}{2} \frac{f(b)-f(a)}{b-a} x^2 - a \frac{f(b)-f(a)}{b-a} x + f(a)x \right]_a^b \\ &= \frac{1}{2}(b-a)\{f(a)+f(b)\} \end{aligned}$$

이고, $(b-a)\{f(a)+f(b)\} \leq 2 \int_a^b f(x)dx$ 이다.

■ 2-1

정적분 $\int_{2n}^{2(n+1)} g(x)h(x)dx$ 에서 $x-2n=t$ 로 놓으면, $\frac{dx}{dt}=1$ 이고

$$\int_{2n}^{2(n+1)} g(x)h(x)dx = \int_0^2 g(t+2n)h(t+2n)dt = \int_0^2 g(t)h(t)dt = A \text{ 이다.}$$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적분 구간을 나누면

$$A = \int_0^2 g(x)h(x)dx = \int_0^1 xg(x)dx + \int_1^2 (2-x)g(x)dx \quad \dots\dots (1)$$

이다. 이때 $\int_1^2 (2-x)g(x)dx$ 의 값을 구하기 위해, $x-1=t$ 로 놓으면, $\frac{dx}{dt}=1$ 이고

$$\int_1^2 (2-x)g(x)dx = \int_0^1 (1-t)g(t+1)dt = \int_0^1 (1-t)g(t)dt \quad \text{이다.}$$

따라서 (1)에 의하여 $A = \int_0^2 g(x)h(x)dx = \int_0^1 xg(x)dx + \int_0^1 (1-x)g(x)dx = \int_0^1 g(x)dx$ 이다.

■ 2-2

정적분 $\int_{-1}^1 \frac{1}{\{f(x)\}^4+1} dx$ 에서 $f(x) = \frac{1}{f(-x)}$ 이므로

$$\int_{-1}^1 \frac{1}{\{f(x)\}^4+1} dx = \int_{-1}^1 \frac{1}{\left\{\frac{1}{f(-x)}\right\}^4+1} dx = \int_{-1}^1 \frac{\{f(-x)\}^4}{\{f(-x)\}^4+1} dx \quad \text{이다.}$$

$-x=t$ 로 놓으면, $\frac{dx}{dt}=-1$ 이고

$$\int_{-1}^1 \frac{\{f(-x)\}^4}{\{f(-x)\}^4+1} dx = - \int_1^{-1} \frac{\{f(t)\}^4}{\{f(t)\}^4+1} dt = \int_{-1}^1 \frac{\{f(t)\}^4}{\{f(t)\}^4+1} dt \quad \text{이다.}$$

$$\text{따라서 } \int_{-1}^1 \frac{1}{\{f(x)\}^4+1} dx = \int_{-1}^1 \frac{\{f(x)\}^4}{\{f(x)\}^4+1} dx \quad \dots\dots (2)$$

$$\text{이고, } \int_{-1}^1 \left[\frac{1}{\{f(x)\}^4+1} + \frac{\{f(x)\}^4}{\{f(x)\}^4+1} \right] dx = \int_{-1}^1 \frac{\{f(x)\}^4+1}{\{f(x)\}^4+1} dx = 2 \quad \text{이다.}$$

$$(2)\text{에 의하여 } \int_{-1}^1 \frac{1}{\{f(x)\}^4+1} dx = 1 \quad \text{이다.}$$

■ 3-1

b 가 자연수일 때, 삼차함수 $g(x) = x(x-1)(x-b) = x^3 - (b+1)x^2 + bx$ 에 대하여

$$g'(x) = 3x^2 - 2(b+1)x + b \quad \text{이다.}$$

이차방정식 $g'(x) = 0$ 의 두 근을 α, β 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alpha + \beta = \frac{2}{3}(b+1), \quad \alpha\beta = \frac{b}{3} \quad \dots\dots (1)$$

이다.

α, β 가 모두 정수라 가정하면, b 가 자연수이므로 (1)에 의해 $\alpha + \beta, \alpha\beta$ 는 자연수이며,

$$2(b+1) = 3(\alpha + \beta) \quad \dots\dots (2)$$

$$b = 3\alpha\beta \quad \dots\dots (3)$$

이다.

3은 2와 서로소이므로 (2)에 의해 $b+1$ 은 3의 배수이고, (3)에 의해 b 는 3의 배수이다.

이는 모순이므로 방정식 $g'(x) = 0$ 의 두 근이 동시에 정수가 될 수 없다.

■ 3-2

이차함수 $F(x) = a(x-r)(x-s)$ 에 대해 $F'(x) = a(2x-r-s)$ 이다.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 r, s 가 유리수이면, 방정식 $F'(x) = 0$ 의 근 $\frac{r+s}{2}$ 는 유리수이다.

$u = 1$ 일 때, 제시문 <바>에 있는 식 (6)은 $\frac{1 \pm \sqrt{1+3v^2}}{3}$ 이다.

(i) $v = 1$ 이면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2}{3}$ 이므로, 제시문 <바>에 있는 t 에 대한 방정식 (5)의 두 근은 유리수가 된다.

그런데 제시문 <바>에 있는 (3)에서 $x = t - \frac{1}{2}$ 이므로,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은 유리수가 된다.

한편, 제시문 <바>에 있는 (3)에 의해 $1 = b + \frac{1}{2}$, $1 = \frac{1-4a}{4}$ 이므로 $a = -\frac{3}{4}$, $b = \frac{1}{2}$ 이다.

따라서 $v = 1$ 에 대응하는 $f(x) = 0$,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삼차함수는

$$f(x) = \left(x^2 + x - \frac{3}{4}\right)\left(x - \frac{1}{2}\right) \text{ 이다.}$$

이때, 명제 ②에 의해 방정식 $f''(x) = 0$ 의 근도 유리수이다.

(ii) $v = 2$ 이면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sqrt{13}}{3}$ 이므로, 제시문 <바>에 있는 t 에 대한 방정식 (5)의 두 근은 무리수가 된다.

그런데 제시문 <바>에 있는 (3)에서 $x = t - \frac{1}{2}$ 이므로,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은 무리수가 된다.

따라서 $v = 2$ 에 대응하는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삼차함수 $f(x) = (x^2 + x + a)(x - b)$ 는 존재하지 않는다.

(iii) $v = 3$ 이면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2\sqrt{7}}{3}$ 이므로, 제시문 <바>에 있는 t 에 대한 방정식 (5)의 두 근은 무리수가 된다.

그런데 제시문 <바>에 있는 (3)에서 $x = t - \frac{1}{2}$ 이므로,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은 무리수가 된다.

따라서 $v = 3$ 에 대응하는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삼차함수 $f(x) = (x^2 + x + a)(x - b)$ 는 존재하지 않는다.

(iv) $v = 4$ 이면 $\frac{1 \pm \sqrt{1+3v^2}}{3} = \frac{1 \pm 7}{3}$ 이므로, 제시문 <바>에 있는 t 에 대한 방정식 (5)의 두 근은 유리수가 된다.

그런데 제시문 <바>에 있는 (3)에서 $x = t - \frac{1}{2}$ 이므로, 이차방정식 $f'(x) = 0$ 의 두 근은 유리수가 된다.

한편, 제시문 <바>에 있는 (3)에 의해 $1 = b + \frac{1}{2}$, $16 = \frac{1-4a}{4}$ 이므로 $a = -\frac{63}{4}$, $b = \frac{1}{2}$ 이다.

따라서 $v = 4$ 에 대응하는 $f(x) = 0$, $f'(x) = 0$ 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게 하는 삼차함수는

$$f(x) = \left(x^2 + x - \frac{63}{4}\right)\left(x - \frac{1}{2}\right) \text{ 이다. 이때 명제 ②에 의해 방정식 } f''(x) = 0 \text{의 근도 유리수이다.}$$

2-6. 문항카드 ⑥ <재외국민 특별전형_국어 1~40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전 계열 / 1~40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4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 2】아래 표는 국어의 자음 체계표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가)		ㄷ, ㅌ, ㅌ		ㄱ, ㅋ, ㆁ	
마찰음		ㅅ, ㅆ			ㅎ
(나)			ㅈ, ㅊ, ㅊ		
비음		ㄴ			
(다)		ㄹ			

1. (가), (나),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가)	(나)	(다)
①	파열음	유음	파찰음
②	파열음	파찰음	유음
③	유음	파열음	파찰음
④	파찰음	파열음	비음

2. 다음 중 입술소리가 아닌 것은? (2점)

- ① ㅁ ② ㅂ ③ ㅅ ④ ㅈ

3. <보기>의 음운 현상에 속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보기>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① 감기[강기] ② 먹는[멍는] ③ 닫는[단는] ④ 붙는[분는]

4. 다음 표준어의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ㅣ’와 ‘ㅌ’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뒤쪽에 속하는 모음이다.
- ② ‘ㅏ’와 ‘ㅑ’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다.
- ③ ‘ㅘ’와 ‘ㅙ’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는 모음이다.
- ④ ‘ㅚ’와 ‘ㅞ’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속하는 모음이다.

5. 다음 중 단어의 구조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3점)

- ① 가위질 ② 손가락 ③ 물병 ④ 책상

6. 다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3점)

- ①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
- ② 이것은 국어 시험 문제지이다.
- ③ 나는 그녀를 영화관에 데려갔다.
- ④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줬다.

7. '그 사람이 입은 옷은 화려하다'에서 '입은'의 품사는? (2점)

- ① 명사 ② 관형사 ③ 동사 ④ 형용사

8. 밑줄 친 조사 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점)

- ① 영희와 철수가 부산에 갔다.
- ② 나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
- ③ 나는 대구와 부산에 다녀왔다.
- ④ 철수는 동생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9. 밑줄 친 어절 중 문장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점)

- ① 울소 나도 찬성이요.
- ② 만세 우리가 이겼다.
- ③ 철수야 나하고 놀자.
- ④ 벌써 철수가 돌아왔어?

【10~11】<보기>는 중세국어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나랏 말씨미 中중國국에 달아 文문字자증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
저 홍 배 이서도 只직춤내 제 ㅼ들 시러 퍼디 ㅼ몹흥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위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
덥 字자증를 ㅼ몹노니 사름마다 한여 수비 니겨 날로 ㅼ몹安안한키 흥고저 홍 쓰르미니라

10. 밑줄 친 단어의 현재 의미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초로 - 까닭으로 ② 시러 - 실어서 ③ 어엿비 - 불쌍하게 ④ 수빙 - 쉽게

11. 위의 표기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말쓰미'와 같이 이어적기 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
- ② 현대국어에 없는 음운이 나타난다.
- ③ '니겨'는 '여겨'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④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다.

12. 다음 밑줄 친 고유어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손님이 더 올지 모르니 음식을 낫잡아 준비해라.
→ 넉넉하게
- ② 급히 다녀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었다.
→ 달콤한 냄새
- ③ 그는 전기 요금이 아까워 집에 에어컨조차 놓지 않는 지독한 노랑이였다.
→ 씹씹이가 인색한 사람
- ④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군소리가 그렇게 많아?
→ 쓸데없는 말

1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 ②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됩니다.
- ③ 그는 유명한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을 배웠다.
- ④ 달걀흰자에 밀가루를 넣고 저었더니 걸쭉하게 엇졌다.

14. 다음 관용 표현의 뜻풀이가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귀에 못이 박히다
→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 싫은 느낌이 들다.
- ②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 애타게 기다리다.
- ③ 발이 넓다
→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면이 있다.
- ④ 바가지로 쓰다
→ 요금이나 물건 값을 비싸게 주다.

15. 다음 속담 중 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 남에게 말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
- ②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사소한 일이라도 쌓이면 나중에 큰일이 된다.
-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해라.
-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쉽게 일을 처리한다.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바르지 않은 것은? (2점)

- 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 ②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 ③ 집을 떠난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④ 몇 시에 도착할지 미리 알려 다오.

17. <보기>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표기가 아닌 것은? (3점)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① 어깨 ② 깎두기 ③ 색시 ④ 발바닥

1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난 것은? (2점)

- ① 육개장을 먹다
- ② 막넛동생에게 편지를 보내다
- ③ 게시판에 글을 쓰다
- ④ 하늘을 나르는 새

19. 다음 <보기>의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3점)

〈보기〉

중국 진나라 때의 ‘차윤’과 ‘손강’ 역시 책 읽기를 즐겼습니다. 차윤과 손강은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할 기름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차윤은 반딧불이를 잡아 주머니에 넣어 그 빛을 등불로 삼아 책을 읽었고, 손강은 한겨울에도 창을 열어 눈에 반사되는 달빛을 이용해 글공부에 매진했다고 해요. 이러한 열정으로 차윤과 손강은 모두 훗날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② 결초보은(結草報恩) ③ 형설지공(螢雪之功) ④ 다다익선(多多益善)

20.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적절한 것은? (2점)

- ① 社會 - 회사 ② 民族 - 민속 ③ 時間 - 시간 ④ 定義 - 정치

【21 ~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89년 한국에 첫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퍼센트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

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성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곳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다)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2천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 전화 충전, 꽃 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 안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라) 편의점의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낮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뿜어 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마)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21. 윗글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가)에서 화두를 던진 후, 그것에 대한 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에서 (라)에 이르는 단락은 점층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다.

22. (나)~(마)의 요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나) : 편의점 영업 시간의 특징
- ② (다) : 편의점 서비스의 다양성
- ③ (라) : 편의점의 디자인 특성
- ④ (마) : 편의점 점원의 온정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점)

- ① 편의점과 도시인의 삶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② 편의점은 대형할인점과는 달리 손님을 귀찮게 굴지 않는다.
- ③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활기찬 시공간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다른 나라의 편의점에는 없는 독특한 점도 있다.

24. 밑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도시의 불빛이 밝을수록 여성들은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겠군”
- ② “도시인들은 점원의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하는 경향이 있군”
- ③ “백화점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개점하지 않는군”
- ④ “편의점의 불빛은 치안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군”

【25~2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케플러는 화성의 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브라헤가 16년 동안 관측하면서 축적해 놓은 화성 관측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성 궤도에 대해 연구했다. 브라헤가 사망한 해인 1601년 9월,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를 연구하려면 먼저 지구 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판단했다. 화성과 같은 행성의 운동이 불규칙한 까닭이 지구의 운동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년 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계란 모양의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행성이 균일한 원형 궤도를 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케플러는 브라헤의 화성 관측 자료들을 이용해 행성의 궤도가 원형임을 맞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계산으로 ㉠보냈다. 자신의 계산이 브라헤의 관측 자료와 오차가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마침내 타원형 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타원 궤도를 적용할 경우 단 몇 분의 오차도 없이 케플러의 계산값과 브라헤의 관측 자료가 일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605년 2월, 케플러는 모든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 태양은 모든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한 초점에 있으며, 행성의 궤도를 이루는 타원은 모두 한 초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플러는 당시의 학자나 시민들에게 영원한 진리로 인정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을 뒤엎은 위대한 반역자이자 영웅으로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609년 케플러는《신(新)천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를〈화성의 운동에 대해〉라고 붙였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브라헤 가족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3년 동안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 이후《신천문학》은 모두 2권으로 출판되었는데 제1권에는 777개 항성의 위치표와 태양과 달의 운동이 기술되어 있고, 제2권에는 1577년에 나타난 혜성과 태양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다. 브라헤의 관측 자료와 케플러의 수학적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 이 책은 화성의 불규칙한 운동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원 운동 대신 타원 운동을 행성 운동의 기본 형식으로 채택했다. 케플러는 70번 이상 행성 궤도를 계산하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 -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속도가 (㉣), 멀 때는 속도가 (㉤) 면적 속도(거리×속도)의 값이 일정하다.

케플러 제3법칙 <조화 법칙> - 각 행성 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는 이 법칙을 발견한 데 대한 감회를 훗날 “이것을 발견한 뒤 내가 느낀 기쁨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노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25. 밑글과 같은 종류의 글이 가지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글쓴이의 주관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표현한다.
- ② 사물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서술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 독자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도록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 ④ 각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룬다.

26. 밑글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2점)

- ① 브라헤는 끈기 있는 관측자였고, 케플러는 뛰어난 수학자였다.
- ② 케플러 이전에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형의 궤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③ 그의 연구적 관심은 화성의 움직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행성과 달에까지 미쳤다.
- ④ 코페르니쿠스도 케플러와 유사한 가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수학적 증명은 케플러에 와서 이루어졌다.

27. ㉠ ~ ㉢을 대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2점)

- ① ㉠: 송별했다 ② ㉡: 완강한 ③ ㉢: 각고의 ④ ㉣: 형언할

28. 내용상 (㉠)와 (㉡)에 들어가기 적절한 말은? (3점)

- | | ㉠ | ㉡ |
|---|-------|---------|
| ① | 느리고 | 빨라서 |
| ② | 빠르고 | 느려서 |
| ③ | 규칙적이고 | 불규칙적이어서 |
| ④ | 불규칙하고 | 규칙적이어서 |

【29 ~ 3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늪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썩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썩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머리오리 : 머리카락

(나)

㉠하이얀 모색(暮色) 속에 피어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아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 갯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㉞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㉟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수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空白)한 하늘에 걸려 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원 손길을 저어 열 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 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外人村)>

* 모색(暮色) : 저녁 어스름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가)에는 비유법 및 청각적 이미지가 구사되어 있다.
- ③ (나)에는 외인촌의 고독한 풍경이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④ (나)의 시간적 배경은 노을이 질 때부터 10시 사이이다.

30.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여인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았군."
- ② "(가)에서 여인은 가족을 잃고 스님이 되었군."
- ③ "(나)의 화자는 '전신주, 벤치, 분수' 등 모던(modern)한 사물에 관심이 많군."
- ④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애수(哀愁)로군."

31.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㉞: 얼굴에 힘들었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표현했다.
- ② ㉟: 여인이 생활에 여유가 없었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 ③ ㊦: 정황상 딸의 죽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생생한 표현을 위해 직유법을 구사하고 있다.

32.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을 모두 고르면? (2점)

〈보기〉

어떠한 감각영역(感官領域)에 따라 그 본래의 감각(1차 감각) 이외에 다른 양상의 감각(2차 감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빛깔이 보이거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을 가리킨다.

- ① ㉠, ㉡ ② ㉡, ㉢ ③ ㉢, ㉣ ④ ㉣, ㉠

【33~36】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모택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방문을 받았다. 박이라고 하는 무진중학교의 내 몇 해 후배였다. 한때 독서광이었던 나를 그 후배는 무척 존경하는 눈치였다. 그는 학생 시절에 이른바 문학소년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핏제랄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러나 핏제랄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얄전하고 매사에 엄숙하였고 그리고 가난하였다.

“신문 지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내려오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는 정말 반가워해 주었다.

“무진엔 왜 내가 못 올 덴가?”

그렇게 대답하며 나는 내 말투가 마음에 거슬렸다.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니까 벌써...”

“벌써 한 4년 되는군...”

4년 전 나는, 내가 경리의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실의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더군요.”

박이 물었다.

“흐응,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스물 아홉입니다.”

“스물 아홉이라. 아홉 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데만, 금년엔 어떻게 해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 해의 내 나이가 스물 아홉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에 지금 아내의 전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옛날의 내 무진행의 내용을 다소 알고 있는 박은 그렇게 물었다.

“응,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휴가를 얻었지.”

“잘 되셨군요. 해방 후의 무진중학 출신 중에선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형하고요.”

“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인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①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참, 자넨 요즘 뭘 하고 있나?"

내가 박에게 물었다. 박은 얼굴을 붉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중략...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춰 있는 것을 보았다. 옛날 언젠가, 역시 이 다리를 밤중에 건너면서 나는 이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는 나무들을 저주했었다. 금방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한 모습으로 나무들은 서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렇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했나?"

내가 물었다.

"법률책 좀 붙들고 앉아 있었더니 그렇게 돼 버렸어. 어서 앉아."

나는 먼저 온 손님들에게 소개되었다. 세 사람은 남자로서 세무서 직원들이었고 한 사람은 여자로서 나와 함께 온 박과 무언가 얘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어어, 밀담들은 그만 하시고, 하 선생, 인사해요. 내 중학 동창인 윤희중이라는 친굽니다. 서울에 있는 큰 제약회사의 간사님이시고 이쪽은 우리 모교에 와 계시는 음악 선생님이시고. 하인숙씨라고, 작년에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신 분이요."

"아, 그러세요. 같은 학교에 계시는군요."

나는 박과 그 여선생을 번갈아 가리키며 여선생에게 말했다.

"네."

여선생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고 내 후배는 고개를 숙여 버렸다.

- 김승옥, <무진기행>

33. 윗글의 시점(視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
- ② '나'가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역할하며 관찰자로서 소설 속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가가 이야기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까지도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34. 밑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 문학을 좋아했고 외형은 도시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 ② 박: '나'보다 4년 후배로 하인숙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엿보인다.
- ③ 하인숙: 무진 출신으로 서울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모교의 교사로 왔다.
- ④ 조: '나'의 고향 친구로 귀향한 '나'를 호들갑스럽게 환대하고 있다.

35. 작품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 유추한 것 중 적절한 것은? (2점)

- ① 핏제랄드의 작품은 엄숙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 ② '희'라는 동거녀는 '사랑'보다는 '경제적 안정' 측면을 더 우선시하는 듯하다.
- ③ '나'의 고향인 무진은 늘 같은 풍경, 변하지 않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 내게 포근함을 준다.
- ④ '박'과 '하 선생'은 같은 학교의 교사들로 조의 응접실에서 처음 만났다.

36. ㉠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뜻하는가? (3점)

- 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성공하는 얘기
- ②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안분지족하는 얘기
- ③ 사회의 진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얘기
- ④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며 혁명을 꿈꾸는 얘기

【37~4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여기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가노라 말스도
물다 이르고 가나뒀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덕에 떨어질 앞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구나
㉡아아 미타찰에서 맛보올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나거시아
유덕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즈른 해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 미상, <정석가> 중에서

(다)

만균(萬鈞)을 늘여 내어 길게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 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 박인로의 시조

37.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의미상 크게 3단락으로 나뉜다.
- ② (나)는 엄격한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다)는 일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어 정형시로 분류된다.
- ④ (가), (나), (다) 모두 이별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심정을 담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 "나는 갑니다"라는 뜻으로 '나'는 월명사이다.
- ② ㉡: 10구체 향가에 나타나는 특수한 감탄사이다.
- ③ ㉢: '밤이 싹 트기 좋은 환경'을 표현한 구절이다.
- ④ ㉢: '끈이 쉽게 끊어지리라'는 뜻이다.

39. (가)의 '한 가지'가 비유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시어를 (다)에서 고르면? (2점)

- ① 노
- ②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
- ③ 해
- ④ 학발쌍친(鶴髮雙親)

40. (나)의 ㉠에 나타난 핵심적 발상과 가장 유사한 면모를 지닌 작품은? (3점)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③ 사해 바다 깊이는 단줄로 잴 수 있건만
님의 덕택 깊이는 무슨 줄로 잴 수 있으리오
- ④ 나무토막으로 조그마한 닭을 새겨 /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벽에 얹히고
이 닭이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 그제사 어머니 얼굴 늙으시웁소서

3. 출제 의도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필답시험은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지식과 학업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으로 응시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대학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한국문학 및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히 응시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의 특성 및 어문규범 및 다양한 유형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대문학 작품과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언어능력, 텍스트 해석 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필답시험은 시험의 변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수준의 제시문과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지문 및 문항은 국어, 문학, 독서 교과서를 토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응시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문항 1 문항 4
	성취기준 2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문항 6 문항 7 문항 8
	성취기준 3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항 5
	성취기준 4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문항 15
	성취기준 5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항 9
	성취기준 6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문항 10 문항 11 문항 19 문항 20
	성취기준 7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과목명: 문법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문항 2 문항 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21
			문항 22
			문항 23
			문항 24
			문항 25
			문항 26
			문항 27
			문항 28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문항 34			
문항 35			
문항 36			
성취기준 2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문항 37	
		문항 38	
		문항 39	
		문항 40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3	
문학	조정래 외	해냄	2019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6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독서	박영목 외	천재	2015	

5. 문항 해설

(1)~(20)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음운의 변동과 정확한 발음, 한글 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올바른 표현 등의 단원을 바탕으로 출제했다. 이 중에서 음운 변동, 준말, 띄어쓰기와 맞춤법,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질문하였다.

(21)~(24)는 편의점이 지닌 특징에 대해 다룬 지문이다. 대형할인점에 비해 편의점이 지닌 장점이 무엇인가를 적은 내용인데 지문과 문항 제시를 통하여 글의 구조와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25)~(28)은 케플러가 면밀한 관찰과 계산을 통하여 기존의 통설을 뒤집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문을 통하여 과학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29)~(32)는 현대시를 통하여 작가,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문제는 시상전개방식, 보편적 감성, 문맥의 이해도를 묻는 방향에서 출제되었다.

(33)~(36)은 유명 현대 작가가 지은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도시인의 속물 근성과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연민 등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37)~(40)은 고전시가 지문을 넣어 구성하였다. 고전시가를 대표하는 두 장르인 향가, 고려가요, 시조를 묶어 이들이 지닌 구조 및 시어의 문맥적 의미들을 물었다. 이를 통해 문학사에 대한 소양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4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2점, 3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②	11번	③	21번	②	31번	④
2번	③	12번	②	22번	④	32번	③
3번	①	13번	①	23번	②	33번	①
4번	④	14번	③	24번	①	34번	③
5번	①	15번	④	25번	③	35번	②
6번	④	16번	③	26번	④	36번	①
7번	③	17번	④	27번	①	37번	②
8번	④	18번	④	28번	②	38번	②
9번	④	19번	③	29번	①	39번	④
10번	②	20번	③	30번	①	40번	④

2-7. 문항카드 ⑦ <재외국민 특별전형_영어 1~33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 1~33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3] <보기>에 나열된 의미들을 포함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 <보기>

(1) the ability to think about and plan for the future, using intelligence and imagination, especially in politics and business

(2) the ability to see

① vision ② illusion ③ concern ④ sight ⑤ syndrome

2. <보기>

(1) involving everyone in the world or in a particular group

(2) true or suitable in every situation

① conventional ② congressional ③ unprecedented ④ universal ⑤ ubiquitous

3. <보기>

(1) an official number that has been counted or calculated

(2) someone who is important in some way

(3) a drawing in a book that gives information

① index ② ranger ③ illustrator ④ stationary ⑤ figure

[4-6] 아래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4. They say that our English teacher used to come lately to class on Mondays.

① They say ② used to ③ lately ④ on Mondays ⑤ no error

5. Right after Cynthia has finished her job interview, she will go over to the cafe where her boyfriend is waiting her.

① Right after ② has finished ③ go over ④ waiting ⑤ no error

6. Taking the expert's opinion into account, this plan should never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irst place.

- ① into ② should ③ been implemented ④ in the first place ⑤ no error

[7-9]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7. Children have an innate ability to learn language.

- ① inborn ② invaluable ③ inadvertent ④ inevitable ⑤ insane

8. After the president fled the country, the palace was plundered by soldiers.

- ① ruled ② devastated ③ occupied ④ influenced ⑤ looted

9. The company has come under intense scrutiny because of its environmental record.

- ① coercion ② examination ③ counterattack ④ pain ⑤ force

[10-11]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0. Not all humor is malicious. Friends spend a good deal of time in playful conversation in which no one gets hurt; indeed, an evening spent laughing with friends is one of life's greatest pleasures. Of course, much of the pleasure comes from () people outside the circle, which reinforces the friendship by the principle that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 ① disparaging ② caring ③ dispatching ④ encouraging ⑤ stimulating

11. People do not just blurt out isolated words but rather *combine* them into phrases and sentences, in which the meaning of the combination can be () from the meanings of the words and the way they are arranged. We talk not merely of roses, but of the red rose, proud rose, sad rose of my days.

- ① preferred ② deferred ③ transferred ④ inferred ⑤ conferred

[12-14] Science is knowledge and an end in itself. The laws and principles discovered in scientific investigation have a value apart from any practical utility they may possess. This intrinsic value is the satisfaction of curiosity, the fulfillment of the desire to know. That human beings have such a desire has long been (). Aristotle wrote that "... to be learning something is the greatest of pleasures not only to the philosopher but also to the rest of mankind, however small their capacity for it." If we consult the most distinguished of twentieth-century scientists, Albert Einstein, we are told that "There exists a passion for comprehension just as there exists a passion for music. That passion is rather common in children, but gets lost in most people later on. (A) Without this passion, there would be neither mathematics nor natural science. Scientific knowledge does not merely give us power to satisfy our practical needs; it is itself a direct satisfaction of a particular desire, the desire to know.

12.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eradicated ② overhyped ③ underestimated ④ ignored ⑤ recognized

13. 밑글의 내용과 가장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Scientific laws and principles have their own value.
② Scientists think that curiosity satisfaction is important and they appreciate it.
③ Aristotle wrote tha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find the greatest pleasure in learning something.
④ Einstein noted that a passion for comprehension is one thing and a passion for music is another.
⑤ Scientific knowledge satisfies our practical needs.

14. 밑줄 친 (A)를 한국어로 가장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이러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수학 또는 자연과학이 없는 것이다.
② 이러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 또는 자연과학이 있는 것이다.
③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수학도 없고, 자연과학도 없을 것이다.
④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수학 또는 자연과학은 없을 것이다.
⑤ 이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수학과 자연과학이 있었을 것이다.

[15-17] Some historians believe that the study of history will reveal the existence of a single cosmic purpose or pattern, either religious or naturalistic, which accounts for or explains the entire course of recorded history. Others deny the existence of any such cosmic design but insist that (A) the study of history will reveal certain historical laws that explain the actual sequence of past events and can be used to predict the future. On either of these views, the historian seeks explanations that must account for and be confirmed by the recorded events of the past. On either of these views, therefore, history is a(n) () rather than a merely descriptive science, and the role of hypothesis must be admitted as central in the historian's enterprise.

15. 밑줄 친 (A)를 한국어로 가장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역사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의 실제 순서를 알 수 있다.
②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과거에 발생한 여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③ 역사의 연구가 드러내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는 법칙들이다.
④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도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킨 원인을 설명해 주는 법칙들을 알게 된다.
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적 법칙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법칙들은 연속해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해 준다.

16.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historical ② optional ③ premature ④ theoretical ⑤ artificial

17. 밑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① It is often believed that a single cosmetic pattern is not enough to explain a course of recorded history.
② The study of history will lead to diverse sources of religion.
③ The recorded events of the past cannot be explained by the efforts of historians alone.
④ Hypothesis is instrumental in the study of history.
⑤ Historians try to explain any sequence of hypothetical events in the past.

[18-19] Facial expressions are useful only if they are hard to fake. As a matter of fact, they *are* hard to fake. (A) People don't really believe that the grinning flight attendant is happy to see them. That is because a social smile is formed with a different configuration of muscles from the genuine smile of pleasure. A social smile is executed by circuits in the brain that are under voluntary control; a smile of pleasure is executed by circuits in other brain systems and is involuntary. Anger, fear, and sadness, too, recruit muscles that can't be controlled voluntarily, and the genuine expressions are hard to fake, though we can () an approximation.

18.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endure ② incarnate ③ enthrall ④ pantomime ⑤ perjure

19. 밑줄 친 (A)의 근거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Genuine expressions can be controlled voluntarily.
② The brain is not controlling social smile.
③ Configurations of muscles in the face tell the truth.
④ A social smile does not exist.
⑤ Facial expressions are not useful when they are voluntary.

[20-21] As insularity is defined as being surrounded by water, insularity in the context of islands can symbolize the disconnection from the mainland. Thus, (A) it is often characterized as small size (relative to the mainland), remoteness and isolation, discriminated identity and, particularly, harsh natural environment. Meanwhile, the claim that insularity is a(n) () on expansion is problematic because insularity also promotes and encourages the freedom to roam and explore, becoming the center of maritime trade connections and seaborne distributions by trying to connect different parts of the mainlands. These make islands as the exceptional position in the matrix of maritime communication and mobility.

20.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hybrid ② constraint ③ necessity ④ effect ⑤ adventure

21. 밑줄 친 (A)의 가장 적절한 예시를 고르시오.

- ① Islands were preferred as tourists' attraction.
② Islands remain as a hub of scientific experimentation.
③ Islands used to be places of exile.
④ Islands were known as natural paradise.
⑤ Islands cannot be the objects of exploration.

[22-23]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uld harm the health of millions and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doctors and public health experts have called for a (A) halt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until it is regulated. The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 and healthcare include the potential for AI errors to cause patient harm, issues with data privacy and security and the use of AI in ways that will () social and health inequalities.

22. 밑줄 친 (A)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stop ② progress ③ rethinking ④ hope ⑤ revision

23.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mediate ② protect ③ coordinate ④ worsen ⑤ eliminate

[24-26] Demographic change is having a fundamental impact on the global economy—but not in the way we once thought it would. A mere five decades ago, some observers were predicting that the human population was too big and would soon strip the world of agricultural resources, leading to mass (), collapse of the global economy, and a host of other ills. But the doomsday scenario of mass overpopulation did not (A) materialize. Rather,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virtually stop growing by the end of this century, owing in large part to falling global fertility rates. The impact of an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is already visible in everything from economic and financial performance to the shape of cities and public policy priorities.

24.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starvation ② competition ③ consumption ④ production ⑤ investment

25. 밑줄 친 (A)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crisis
② Demographic decline and its aftermath
③ Overpopulation and economic collapse
④ Aging society and rising global fertility
⑤ Population explosion and its crucial effects

26. 밑줄 친 (A)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fortify ② expire ③ occur ④ increase ⑤ succeed

[27-29] Research has shown that electric cars are better for the environment, and the battery pack of an electric vehicle (EV) is a feat of intricate engineering. Thousands of cylindrical cells transform lithium and electrons into enough energy to propel the car hundreds of kilometers, again and again, without tailpipe emissions. But when the battery comes to the end of its life, its green benefits fade. If it ends up in a (A) landfill, its cells can release problematic toxins and heavy metals. Recycling the battery can be a hazardous business as current EV batteries are really not designed to be recycled. That wasn't much of a problem when EVs were rare. But now the technology is taking off, and most automakers have stressed that they plan to phase () combustion engines within a few decades.

27.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around ② out ③ of ④ up ⑤ across

28. 밑줄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① Battery recycling technologies are much advanced.
- ② More and more customers prefer electric vehicles.
- ③ Combustion engine vehicles will survive far longer than expected.
- ④ EV battery cells are not environmentally-friendly.
- ⑤ Electric vehicles can generate more power than combustion engines.

29. 밑줄 친 (A)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service center ② junkyard ③ charging station ④ garage ⑤ problem

[30-32] The circular reasoning fallacy is an argument that assumes the very thing it is trying to prove is true. Instead of offering evidence, it simply repeats the conclusion, (A) rendering the argument logically incoherent. The following is a good example of the circular reasoning fallacy.

Mother: "It's time to go to bed."

Child: "Why?"

Mother: "Because this is your bedtime."

People may commit circular reasoning fallacy unintentionally because (B) they are convinced of their own assumptions and take them as given. Sometimes, circular reasoning is used deliberately to () the speaker's lack of understanding or evidence.

30. 밑줄 친 (A)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rejecting ② changing ③ enhancing ④ revolving ⑤ making

31.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 ① objectify ② mask ③ conjecture ④ invite ⑤ interpret

32. 밑줄 친 (B)를 한국어로 가장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스스로 설득되어 이미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②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하려고 한다.
- ③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가정을 주고받는다.
- ④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확신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설득되어 다른 사람들도 설득하려고 한다.

33.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4점]

In the game known as Broken Telephone (or Chinese Whispers) a child whispers a phrase into the ear of a second child, who whispers it into the ear of a third child, and so on. Distortions (), and when the last child announces the phrase, it is comic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he game works because each child does not merely degrade the phrase, which would culminate in a mumble, but *reanalyzes* it, making a best guess about the words the preceding child had in mind.

- ① decrease ② improve ③ disappear ④ accumulate ⑤ advance

3. 출제 의도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의 단어에 대한 이해도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폭넓게 다루는 다양한 시사 주제들을 소개하는 영어 지문의 독해와 이해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이 입학 후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확인하고자 했다. 평가에 활용되는 단어들과 지문들의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시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55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		관련
	성취기준 1	[12영 I 03-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문항 1~11
	과목명: 영어II		관련
성취기준 1	[12영 II 03-04]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문항 12~3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Oxford UP	Online	
"How the Mind Works"	Steven Pinker	Norton	1997	
"Words and rules: The ingredients of language"	Steven Pinker	Basic Books	1999	
The Guardian: "AI poses existential threat and risk to health of millions, experts warn"	Andrew Gregory	The Guardian	9 May 202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hanging Demographics and Economic Growth"	Gee Hee Tong	IMF	Mar 2020	
Science: "A dead battery dilemma"	Ian Morse	Science	20 May 2021	

5. 문항 해설

1~3, 7~9번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단어들의 영어 의미를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으며, 4~6번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10번~33번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지문 독해 역량과 내용 이해를 평가하고자 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반에서 다루는 일반적이고 시사적인 주제 (언어 사용의 목적과 효과, 수학과 자연과학의 중요성, 역사 연구의 가치,

섬나라의 지정학적 특징, 인공지능의 위험성, 노령화 사회와 인구감소,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문제, 논리적 사고 문제 등)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문들을 활용해서 본 평가 대상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사용함으로써 지문의 주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독해 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33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3점, 4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❶	12번	❺	23번	❹
2번	❹	13번	❹	24번	❶
3번	❺	14번	❸	25번	❷
4번	❸	15번	❺	26번	❸
5번	❹	16번	❹	27번	❷
6번	❺	17번	❹	28번	❹
7번	❶	18번	❹	29번	❷
8번	❺	19번	❸	30번	❺
9번	❷	20번	❷	31번	❷
10번	❶	21번	❸	32번	❹
11번	❹	22번	❶	33번	❹

2-8. 문항카드 ⑧ <재외국민 특별전형_수학 1~20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 / 1~20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x = \frac{1-i}{1+i}$ 일 때, $1+x+x^2+x^3+\dots+x^{2024}$ 의 값은? [4점]

- ① $-i$ ② -1 ③ 0 ④ 1 ⑤ i

2. 직선 $x+y=1$ 과 원 $x^2-2x+y^2-2y=k$ 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의 값은? [6점]

- ① -2 ② $-\frac{3}{2}$ ③ -1 ④ $-\frac{1}{2}$ ⑤ 0

3. 전체집합 U 와 두 부분집합 A, B 에 대하여, $n(U)=40$, $n(A)=30$, $n(B)=25$ 이다.

$n(A \cap B)$ 의 최댓값을 M , 최솟값을 m 이라 할 때, $M+m$ 의 값은? [4점]

- ① 25 ② 30 ③ 35 ④ 40 ⑤ 45

4. 함수 $f: \{1, 2, 3\} \rightarrow \{1, 2, 3\}$ 에 대하여 $f(1) \times f(2) \times f(3) = 4$ 일 때,

$f(1)+f(2)+f(3)$ 의 값은? [4점]

-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5. $5^x = 16$, $20^y = 32$ 일 때, $\frac{4}{x} - \frac{5}{y}$ 의 값은? [6점]

-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6. 함수 $y = 9^x + 9^{-x} - 4(3^x + 3^{-x})$ 의 최솟값은? [6점]

- ① -10 ② -8 ③ -6 ④ -4 ⑤ -2

7. 이차방정식 $2x^2 - x + k = 0$ 의 두 근이 $\sin \theta, \cos \theta$ 일 때, 상수 k 의 값은? [4점]

- ① $-\frac{4}{3}$ ② $-\frac{3}{4}$ ③ $-\frac{3}{8}$ ④ $\frac{3}{8}$ ⑤ $\frac{3}{4}$

8. $\tan 1^\circ \times \tan 2^\circ \times \tan 3^\circ \times \cdots \times \tan 88^\circ \times \tan 89^\circ$ 의 값은? [6점]

- ① $\frac{1}{\sqrt{3}}$ ② $\frac{1}{\sqrt{2}}$ ③ 1 ④ $\sqrt{2}$ ⑤ $\sqrt{3}$

9.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 12, x$ 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은? [4점]

-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10. 수열 $\{a_n\}$ 에서 $\sum_{k=1}^n a_k = n^2 - 2n + 5$ 일 때, a_{50} 의 값은? [4점]

- ① 97 ② 99 ③ 101 ④ 103 ⑤ 105

11. $\frac{1}{2^2-1} + \frac{1}{4^2-1} + \frac{1}{6^2-1} + \cdots + \frac{1}{50^2-1}$ 의 값은? [6점]

- ① $\frac{25}{51}$ ② $\frac{26}{51}$ ③ $\frac{50}{51}$ ④ 1 ⑤ $\frac{52}{51}$

12.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1} \frac{x^2 - x + a}{x - 1} = b$ 일 때, $a + b$ 의 값은? [4점]

-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3. 함수 $f(x) = \frac{x^3 + 1}{x^2 + 2ax + 7}$ 이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의 개수는? [6점]

- ① 1 개 ② 3 개 ③ 5 개 ④ 7 개 ⑤ 9 개

14. $p < q < r$ 인 세 실수 p, q, r 에 대하여 이차방정식 $(x-p)(x-q) + (x-q)(x-r) + (x-r)(x-p) = 0$ 의 두 실근이 α, β ($\alpha < \beta$)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4점]

- ① $\alpha < p$ 이고 $q < \beta < r$ 이다.
- ② $\alpha < p$ 이고 $\beta > r$ 이다.
- ③ $p < \alpha < q$ 이고 $\beta > r$ 이다.
- ④ $q < \alpha < r$ 이고 $\beta > r$ 이다.
- ⑤ $p < \alpha < q$ 이고 $q < \beta < r$ 이다.

15. 함수 $f(x)$ 에 대하여 $f'(3) = 6$ 이고 $\lim_{x \rightarrow 3} \frac{3f(x) - xf(3)}{x^2 - 9} = 1$ 일 때, $f(3)$ 의 값은? [4점]

- ① -12 ② -6 ③ 0 ④ 6 ⑤ 12

16.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30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4점]

-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17.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 와 그 도함수 $f'(x)$ 에 대하여 $\{f'(x)\}^2 = 4f(x)$, $f(1) = 0$ 이 성립할 때, $f(3)$ 의 값은? [6점]

- ① -4 ② -2 ③ 0 ④ 2 ⑤ 4

18. 함수 $f(x) = x(x^2 - ax - a)$ 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정수 a 의 개수는? [6점]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19. 다항함수 $f(x)$ 의 한 부정적분 $F(x)$ 에 대하여 $F(x) = xf(x) + 2x^3 + 3x^2 + 5$, $f(0) = 1$ 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의 최댓값은? [6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0. 이차함수 $f(x)$ 가 $\int_{-1}^1 f(x)dx = \int_0^1 f(x)dx = \int_{-1}^0 f(x)dx$ 를 만족시키고 $f(0) = -1$ 일 때, $f(2)$ 의 값은? [6점]

- ① -13 ② -9 ③ 3 ④ 7 ⑤ 11

3. 출제 의도

방정식과 부등식, 집합,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의 수학, 수학 I, 수학 II 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본 문제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수학		
	문항	과목명	관련 성취 기준
	1	수학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2	수학	도형의 방정식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3	수학	집합과 명제 [10수학03-0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4	수학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5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3]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수학, 수학 I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	수학, 수학 I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8	수학 I	삼각함수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9	수학 I	삼각함수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0	수학 I	수열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1	수학 I	수열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12수학 II 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3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12수학 II 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	과목명	관련 성취 기준
14	수학, 수학Ⅱ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5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12수학Ⅱ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6	수학Ⅱ	미분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7	수학Ⅱ	미분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8	수학, 수학Ⅱ	함수, 미분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9	수학, 수학Ⅱ	방정식과 부등식, 적분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수학Ⅱ03-02]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알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0	수학Ⅱ	적분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수학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51-57, 61-68, 70-81, 144-151, 178-179, 219-223, 227-234
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43-47, 51-58, 60-61, 64-71, 137-144, 168-169, 209-213, 217-224
고등학교 수학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46-68, 80-110, 138-149
고등학교 수학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17-25, 50-64, 75-110, 137-147
고등학교 수학Ⅱ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0	19-28, 36-48, 62-70, 81-88, 114-120, 123-125
고등학교 수학Ⅱ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0	20-28, 35-47, 53-59, 65-72, 83-90, 115-130

5. 문항 해설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번~4번의 네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의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5번~11번의 여섯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수열, 수열의 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번~20번의 아홉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다항함수의 도함수, 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본문과 연습문제를 응용하여 출제한 문항으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험생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2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4점, 6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④	6번	③	11번	①
2번	②	7번	②	12번	④
3번	④	8번	③	13번	③
4번	③	9번	⑤	14번	⑤
5번	①	10번	①	15번	⑤

※ 제출서류 기반 면접 질문 사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시험(고사)은 '제출서류 기재 내용'과 '의사소통능력 및 인생'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단순 교과 지식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별도의 문항 출제 없이 개별 수험생의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므로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접 질문 사례) **숙명인재(면접형)전형**

한국어문학부	■ 2학년 문학 시간에 동백꽃, 눈길, 무진기행의 공간적 배경이 가지는 여행지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 후 문학 여행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스마트미디어시대의 독서교육과 관련한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독서교육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학과	■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역사 전개과정에서 지리적 요소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동아시아사 시간에 '북방민족의 한족통치와 호한융합'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뉴스를 작성하였는데, 활동 내용과 느낀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1학년 프랑스어 시간에 프랑스의 문화정책 탐구를 통해 프랑스가 문화강대국으로 현재까지 건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사르트르와 카뮈의 문학 성향에 대한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탐구를 통해 알게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어중문학부	■ 1학년 영어 시간에 중미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기사를 보고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중미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현대 중국 사회의 시민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진로 주제 탐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중국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진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언어·문화학과	■ 2학년 문학 시간에 '독일과 한국의 분단문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브레히트와 전봉건의 작품세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두 작가의 작품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학과	■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루스 베네딕트 읽고 쓴 보고서에서 지은이의 의도를 '일본인의 이중성'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술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이중성을 일본인만의 특수성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일본의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한국에 시사가 될 만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헌정보학과	■ 1학년 정보 시간에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문헌정보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도서관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국내외의 도서관법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해주시고, 국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외식학부 - 문화관광학전공	■ 3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지역사회 소규모 미술관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남북통일 이후 가장 먼저 지출해야 할 통일비용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비용을 선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외식학부 -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 3학년 동아리 활동 시간에 로컬푸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MZ세대 가치소비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MZ세대의 가치는 무엇인지와, 그 가치에 기반한 소비 성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반영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견해는 어떠한지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부	■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 한국사 시간에 조선시대 교육 기관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면서 조선시대 교관들과 현재의 교사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공통점이었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자원경영학과	■ 2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소년 비행과 관련한 탐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소년 비행의 주 원인이 가정이고 해결책 역시 가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 비행과 가정 환경 사이 어떠한 사회적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노인의 키오스크 사용 어려움을 주제로 탐구하였습니다. 관련한 해결 방안과 앞으로 디지털 세대와 맞물려 필요할 노인 대상 교육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학부	■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산업화와 아동 복지를 주제로 산업화로 인한 아동 복지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윤리와 사상 시간에 학벌주의, 능력주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인 비판적 글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아동 교육의 본질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정치외교학과	■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코로나 격리 지원금 축소'에 대한 서로 다른 언론사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언론사별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격리지원금은 적정했었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배경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	■ 3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디지털행정에 관해 탐구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측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해야 할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 논술 시간에 '공채제도'의 문제점을 조선의 과거제 개혁론에서 탐구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탐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광고학과	■ 1학년 기술·가정 시간에 '1회용품 줄이기'를 주제로 팸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고안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영어1 시간에 미국 IT기업 광고를 분석해 국가별 차별화 전략에 주목하고, 이 전략의 장점으로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서 어떤 국가별 차별화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일관된 고객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제학과	■ 2학년 경제 시간에 '재화의 가격 변동 사례 탐구 활동'에서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기름 가격이 폭등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탐구 내용과 더불어 원자재 공급 안정을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밀레니얼세대와 MZ세대의 소비행태에 대해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두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탐구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사회심리학과	■ 2학년 언어와 매체 시간에 'SNS 심리테스트 유행의 소통적, 자기이해적 의미와 과몰입에 대한 비평'을 탐구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하였고, 심리테스트 유행의 원인을 코로나19에서의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내용과 탐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심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 치료 및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채점기준표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부	■ 2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법률적 개선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탐구활동 계기와 해당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제학부	■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엄격한 법집행이 재범방지효과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타당한지에 대해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수학 II 시간에 '총 비용함수를 정의하고 기업이 재화를 1개 더 생산할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계비용이며 이때, 총비용 곡선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 생산량의 한계비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상호작용을 탐구하였습니다. 이 둘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면서도 임금상승 노동생산성 상승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갈등의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이며, 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글로벌서비스학부 - 글로벌협력전공	■ 2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를 읽은 뒤 책에서 소개한 글로벌 불균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생활과 윤리 시간에 국제 사회의 갈등 해결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글로벌서비스학부 - 앙트러프러너십전공	■ 1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빈곤국가의 기아, 전염병, 식량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진로활동에서 '다크넷지, 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보는 구독경제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탐구하고, 친구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정보 시간 정보과학기술 진로탐구활동에서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트라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트라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본인의 희망 진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부 - 영어 영문학전공	■ 2학년 영어권문화 시간에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두 국가 간 영어의 차이 중 인상깊었던 것을 소개하고 그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인공지능이 쓴 시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부 - 테슬 (TESL) 전공	■ 2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영어 선행학습의 효율성과 그 한계'라는 주제로 탐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로희망인 '영어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영어 선행학습의 시기,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각 국가의 권역을 언어로 구분하여, 영어 사용 국가 및 각국의 영어 교육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대비되는 영어 교육방식의 차이를 가진 두 국가를 소개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학부	■ 3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언론의 시각 차이에 대해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선택한 기준과 탐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해한 정보 리터러시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학부	■ 2학년 화학1 시간에 '사라진 스푼'을 읽고 때로는 독극물로 때로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원소의 성질을 조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나만의 약 만들기 부스 기획'을 했는데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질문 사례)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전계열 선발	■ 우리 대학 OO전공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 진로활동에서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을 읽고 학생들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